

# 남자 7체급 석권하며 11연패 달성 여자, 대만과 공동우승 차지

94. 1. 28~30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스타디움



## 〈한국대표선수단〉

- 단장 : 박창락(대전시협회 부회장)
- 감독 : 윤종완(상명여대 교수/대한태권도협회 홍보분과위원장)
- 남자부코치 : 이완옥(계명대학교 감독)
- 여자부코치 : 박영수(리라공고 코치)

## • 선수(남자부)

- 핀 급 : 최용훈(동아대 /1위)
- 플라이급 : 고동완(한체대 /1위)
- 밴 텀 급 : 김현용(경희대 /1위)
- 페 더 급 : 양재철(한체대 /1위)
- 라이트급 : 정광채(한체대 /1위)
- 웰 터 급 : 김경훈(동성고/탈락)
- 미 들 급 : 박종범(국군체육부대 /1위)
- 헤 비 급 : 김제경(국군체육부대 /1위)

## • 선수(여자부)

- 핀 급 : 양소희(천안여고 /3위)
- 플라이급 : 이순영(용인대 /1위)
- 밴 텀 급 : 진용순(한체대 /1위)
- 페 더 급 : 신동선(성신여대 /2위)
- 라이트급 : 강해은(경성여실고 /3위)
- 웰 터 급 : 조향미(경희대 /3위)
- 미 들 급 : 박선미(상명여대 /1위)
- 헤 비 급 : 김태희(성신여대 /1위)

## 대표선수단 구성 및 강화훈련 실시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에는 박창락 대전시협회 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남녀선수 1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선수단은 남녀 종합우승을 목표로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태릉선수촌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대표선수단 (남자부)은 1974년도에 시작된 1회대회부터 92년 10회 대회까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10연패를 달성한바 있다.

여자부의 경우 대만과 한국이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분석에 따른 우리 대표선수들의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7회 대회(1986)부터 정식경기가 펼쳐진 여자부 경기에서는 대만이 우승, 8회대회에는 한국 우승, 9회 대회에는 대만 우승, 10회 대회에는 한국이 우승하며 막강막하의 실력을 보여준바 있다.

한국대표선수단은 1월 22일 12시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결단식을 갖고 1월 26일 대회장소인 필리핀 마닐라를 향해 출국했다.

## 차기 대회 개최지, 호주 멜버른으로 결정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주관하는 아시아태권도연맹은 대회 하루 전날인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1개국 회의대표가 참

석한 가운데 마닐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회의 대표로는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참가하였다.

총회의 주요 안건인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에서는 호주와 요르단이 경합을 벌였으나 2천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국 태권도협회가 자국 IOC 위원과 NOC 위원장들을 접촉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차기대회 개최지를 호주 멜버른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96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선수권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치루어지게 된다.

## 20개국에서 총 200명의 선수 출전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연맹 회원국 20개국에서 남자부 131명, 여자부 69명 등 총 20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이는 1984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6회대회에 21개국 이 참가한 이래 7회 18개국, 8회 17개국, 9회 18개국, 10회 16개국 이 참가한 이래 10년만에 참가국 수가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의 경기 일정 및 참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기일정>

- 1. 28. (금)

남녀 밴텀급/페더급 예선부터 결승까지

- 1. 29. (토)

남녀 핀급/라이트급/웰터급 예선부터 결승까지

- 1. 30. (일)

남녀 플라이급/미들급/헤비급 예선부터 결승까지

### <참가현황>

체 급	남자	여자
핀급	18	10
플라이급	17	11
밴텀급	18	11
페더급	19	10
라이트급	18	9
웰터급	17	9
미들급	12	4
헤비급	12	5
계	131	69

## 남자부, 7체급 금메달 획득하며 종합 11연패의 기록세워

남자부는 전체 8체급 중 4~5개 체급의 석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대회에 출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7체급 석권으로 중주국의 위용을 떨쳤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헤비급 우승과 93년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우승으로 세계 최강의 기량을 보여준 헤비급의 김재경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이란의 파르자드선수를 6:2 판정승으로 우승, 92 제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기록하였다.

91월드컵 대회 미들급 우승과 92세계대학선수권대회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상무의 박종범선수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 미들급 동메달리스트인 요르단의 파헤드를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밖의 6체급에 출전한 한국 대표 선수들은 국제 대회 처녀 출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며 선전하였다.

대회 첫날 밴텀급 경기에 출전한 김현용선수(경희대)는 예선전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대만선수를 맞아 근소한 득점차로 판정승을 거두는 어려움끝에 결승전에 올라 필리핀의 태권도 영웅으로 추최국의 유력한 우승후보인 바르가스(93년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 밴텀급 3위)선수를 맞아 돌려차기, 나래차기, 앞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제압, 8:1 판정승을 거두고 한국에 첫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페더급의 양재철선수(한체대)는 결승에서 대만의 야오 칭 푸 선수를 맞아 뒤돌려 차기 공격등으로 득점을 올리며 4:1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첫날 경기에서 남자 두체급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쾌조의 스타트로 출발했다.

대회 둘째날 경기를 가진 핀급의 최용훈선수(동아대)는 결승에 진출, 이란의 라힘자데 알리선수를 4:1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라이트급의 정광채(한체대)

선수도 대만의 웨이 쉹 홍 선수를 3:1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선발된 웰터급의 김경훈(동성고)선수는 준준결승에서 홈팀인 필리핀의 아놀드 아티엔자선수를 맞아 분전했으나 4:3으로 판정패하고 메달권에서 밀려났다.

필리핀의 아놀드 아티엔자는 결승에서 대만의 강력한 우승후보자인 추 이엔 류('92 10회 아시아선수권 웰터급 2위, '93 11회 세계선수권 웰터급 2위)를 4:3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 필리핀의 영웅으로 각광을 받았다.

플라이급의 고동완(한체대)선수도 대회 마지막날 결승에 올라 이란의 모호센을 맞아 주특기인 뒤돌려차기 공격을 멋지게 펼치는 가운데 3: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남자부는 웰터급을 제외한 전체급 우승으로 종합 11년 우승의 기적을 이룩했다.

## 여자부 기적과 같은 종합우승 달성

대회 둘째날 경기를 마칠 때까지도 한국은 금1, 은1, 동3인데 비해 대만이 금4, 은1개를 따내 기적이 없는 한 대만의 종합우승이 확정적이었던 여자부는 마지막날 3체급 경기를 모두 우승으로 이끄는 종주국의 투혼을 보이며 태권도 국제경기 사상 처음으로 대만과 공동우승을 차

지하는 숨막히는 열전을 펼쳤다.

대만은 플라이급과 헤비급을 제외한 6체급 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 입상경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한국팀은 대만의 강력한 도전에 고전했다. 대회 첫날 밴텀급과 페더급 경기에서 한국과 대만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금1, 은1개 씩을 나누어 갖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밴텀급의 진용순(한체대)은 결승에서 대만의 탕 후이웬('91 3회 세계선수권 및 월드컵 플라이급 3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 플라이급 2위, 93 4회 세계선수권 밴텀급 1위)을 맞아 1회전에서 1득점을 내주며 고전했으나 3회전 3:2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반면 페더급의 신동선(성신여대)은 대만의 류차오청(92 10회 아시아선수권 페더급 1위)을 맞아 10cm 이상되는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 4:4 동점을 이루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우세승을 내주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대회 이틀째 경기는 핀급, 라이트급, 웰터급 경기가 펼쳐졌으나 8강전에서 모두 대만선수에 패하고 동메달 셋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핀급의 양소희(천안여고)는 준결에서 대만의 유에잉로(92 10회 아시아선수권 핀급 2위)에게 3:2 판정패 당했다. 유에잉로는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데이

### 〈남자부 종합성적〉

순위	국명	금	은	동
1	한국	7	0	0
2	필리핀	1	1	3
3	대만	0	3	1
3	이란	0	3	1
5	요르단	0	1	0
6	말레이시아	0	0	3
7	베트남	0	0	2
8	호주	0	0	1
	인도네시아	0	0	1
	바레인, 일본	0	0	1
	쿠웨이트	0	0	1
	사우디아라비아	0	0	1
14	싱가포르	0	0	0
	인디아	0	0	0
	스리랑카	0	0	0
	네팔, 태국	0	0	0
	홍콩, 예멘	0	0	0

양 아티카를 7:1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라이트급의 강해은(경성여실고)은 대만의 최강자 이안첸(88서울올림픽 밴텀급 1위, 92올림픽 라이트급 1위)에게 3:1 판정패. 이안첸은 결승서 필리핀의 마넬리아(92 10회 아시아선수권 밴텀급 2위)에 7:1 판정승을 거두었다.

웰터급의 조향미(경희대)는 대만의 리치판(92 10회 아시아선수권 웰터급 1위)에게 3:4로 패하고 탈락했다.

리치판은 결승서 일본의 요리코 오카모도를 3:2 판정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 〈여자부 종합성적〉

순위	국명	금	은	동
1	대만	4	2	0
1	한국	4	1	3
3	필리핀	0	1	4
4	인도네시아	0	1	2
5	일본, 네팔	0	1	0
5	말레이시아	0	1	0
8	호주	0	0	3
9	싱가포르	0	0	2
	베트남	0	0	2
11	요르단	0	0	0
	스리랑카	0	0	0
	바레인	0	0	0
	인디아	0	0	0
	쿠웨이트	0	0	0
	사우디아라비아	0	0	0
	홍콩, 예멘	0	0	0
	이란, 태국	0	0	0

이로써 한국은 금1, 은1, 동3을 기록한데 반해 대만은 금4, 은1로 크게 앞서가 마지막날 3체급 경기를 남겨놓고 있긴 했으나 대만의 종합우승이 거의 확실했다. 기적이 없는 한 한국의 종합우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지막날 플라이, 미들, 헤비급 모두 금메달을 휩쓰는 선전 끝에 한국은 금4, 은1, 동3, 대만은 금4, 은2로 메달점수에서 34점 동점을 이루었고 토너먼트 승점이 17점 동점을 획득, 태권도 국제경기 사상 처음으로 공동우승이 선언되었다.

플라이급의 이순영(용인대)은

네팔의 바이드야를 5:1 판정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핀급 우승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미들급의 박선미(상명여대)는 결승에서 대만의 유아쉬(93 4회 여자세계선수권 미들급 3위)를 맞아 오른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 7:5의 판정승을 거두었다.

헤비급의 김태희(성신여대)는 결승에서 인도네시아의 아미스를 맞아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여자부 공동우승을 이끌 어내는 수훈을 세웠다.

### 대회 총평

아시아 2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남녀 각각 종합우승을 획득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했다.

특히, 94년 10월의 히로시마 아시아대회를 대비하여 태릉선수촌 강화훈련을 실시해온 남자 선수들은 8체급 중 7체급 금메달 획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본다.

여자부는 역대 최강 전력을 보유한 대만의 도전에 고전했으나 선전분투하여 공동 종합우승을 달성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20개국의 참가국 중 15개국이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 조직적인 대회 운영, 한국 선수단의 모범적인 경기장 태도와 필리핀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필리핀의 태권도에 대한 각별한 인식에 중주국 선수들 부러움

## 1. 처음에

태권도를 해외에서 취재하는 것은 다른 종목의 경험에 비취 보면 뭔가 우리 어깨를 으쓱거리게 하는 것이 분명있었다.

대한체육회 45개 가맹단체 중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생생대 전 세계로 퍼트린 유일한 종목.

바로 태권도의 중주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기자에게도 약간의 흥분이 일고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이번대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로는 오랫동안 국가 대표 1진이 출전하는데다 남자팀의 경우 올라가 아시아계임을 앞두고 아시아각국의 실력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했다.

또한 태권도의 올림픽경기종목 채택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올림픽개최지인 호주를 비롯, 아시아 20개국의 호응도를 직접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시드니인근 종합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이미 태권도전용경기장을 완공했고 태권도의 경기력향상을 위해 5백만달러의 훈련지원비를 책정해냈다는 현지 사범의 얘기는 이번 대회시 얻은 뜻밖의 수확이었다.

이밖에 오래전에 필리핀에 진출한 한 한국사범이 거의 혼자 힘으로 이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뤘던 뒷얘기와 필리핀에 최근 일고 있는 태권도붐은 중주국이라는 울타리에만 안주하고 있는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줄만했다.

## 2. 대회운영

니노이 아키노체육관에서 벌어진 이번대회는 개막식부터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필리핀의 일급 무대안무가가 연출했다는 개막식 공개행사는 필리핀 전통춤과 현대춤이 조화를 이뤄 그들이 이번 대회를 위

서완석

국민일보 체육부 기자

해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태권도 행사에 걸맞게 수련생들이 펼친 태권도시범은 몇년전 한국에서 행한 시범을 본뜬듯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흥미로운 구성력을 지녀 경기장을 가득 메운 2천여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번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홍성천 사범은 20여년전 이국으로 와 정착, 현재는 필리핀 태권도협회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필리핀 태권도의 대부로 군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대회는 대회운영에 관한한 가장 한국적이라 할 만큼 잘짜여진 조직력과 일사분란한 일체성으로 한치의 오차없이 잘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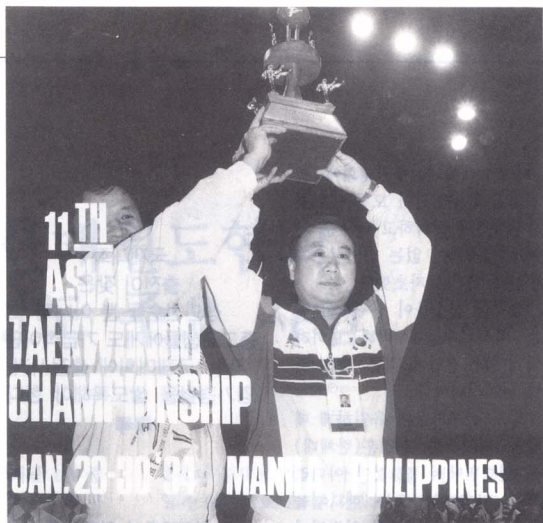
각국 선수단에는 태권도를 오래 수련한 가이드가 2명씩 따르고 경기장에는 무전기를 든 운영요원이 항상 대기하면서 출전 선수호명 등 그때 그때 선수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챙겨줬다.

이같은 모습은 2년전 현지인들로 대회를 치른 칼라룸푸르 아시아선수권대회와는 조직력에서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 우연하게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 아시아최종예선대회 취재차 현지에 있었던 기자는 엉성한 대회운영에 실망감이 컸으나 이번 만큼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 3. 경기진행

당초 한국의 일방적인 우세가



▲여자부는 대만과 공동우승을 차지, 윤종원 감독이 대만 감독과 함께 우승컵을 수상했다.

점쳐지고 있던 터라 경기 자체의 승부는 이미 흥미거리가 아니었다.

다만 어느나라가 한국선수에게 선전, 금메달을 빼앗을 수 있느냐와 몇나라가 메달을 따내느냐하는 것은 태권도 보급과 관련, 각국 코치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경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대만과 수년째 쌍벽을 이루고 있는 여자부의 경우 한국을 겨냥한 동남아 각국 심판들의 견제에 밀려 첫날부터 한국 선수들의 고전이 계속됐다.

첫날 대만과 금·은메달 한개씩을 주고 받으며 팽팽히 맞서던 한국은 둘째날 8강전에서 출전선수 3명이 모두 대만과 접전 끝에 패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웠

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날 나머지 3체급을 석권, 가깝스로 대만과 공동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대만이 보여준 실력은 이미 종주국의 자존심을 꺾은 뒤였다.

한국 남자팀은 장신화를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여자팀은 대만에 비해 현격한 신체적 열세를 보였다.

일발필도의 강타보다 가볍게 치고 빠지는게 유리한 현행 태권도 체점방식으로는 리치가 긴 장신 선수가 절대 유리한데 바로 이점에서 대만은 한국을 압도했다.

대만은 이번대회 여자부종합우승을 노리고 이미 은퇴한 선수수를 재기시키는 등 대부분선수들이 대표경력 6년 안팎인 정예 멤버로 대표단을 구성, 야심만만하게 이번대회에 출전했었다.

반면 한국 여자팀은 지난해

가을 뉴욕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선수전원이 모두 대표최종선발전서 탈락하고 대부분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신인선수가 출전해 고전을 자초했다.

중주국 선수들이 선수층이 얇은 외국선수들에 비해 오히려 국제대회 경험이 적은 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남자 선수가운데 유일하게 메달을 따지 못한 김경훈(한체대)도 실력면에서 진 것이 아니라 경험 미숙에서 오는 핸디캡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의 신진전에 말려들어 패배했다.

국제대회 출전이 잦은 성인선수들 뿐 아니라 중고교생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자주 국제대회에 출전시켜 경기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번 대회가 준 교훈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15개국에서 1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 아시아권에서만은 태권도가 평균화됐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줄 호재로 짐작되며 각국의 태권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심판판정은 경기력향상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로지 경기결과로만 가지고 냉정히 판정에 임해야 할 심판들이 각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정성을 잃는 것이 수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 국제대회

### 출전이 잦은

### 성인선수들 뿐 아니라

중고교생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자주 국제대회에 출전시켜

경기경험을 쌓도록해야 한다



또 심판수준이 경기력에 미치지 못해 경기흐름을 자주 끊어놓는 가하면 가끔 경기자체를 뒤집는 판정이 나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차제에 아시아연맹 차원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쪽 심판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심판들도 더이상 빛나간 애국심에서 탈피, 중주국의 프리미엄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보다 냉정한 자세로 판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맺는말

한국은 비록 이번대회서 남자 11연패, 여자 2연패를 차지해 중주국의 위력은 과시했지만 개최국 필리핀에게서 되레 태권도를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했다.

태권도가 상류층 인사들의 고급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한국 태권도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경의감을 표시했다.

한국선수단이 만들어진 페넨트와 티셔츠는 어느 것보다 그

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었고 급기야는 경기장 밖에서 비싼값에 팔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이번대회 유일한 필리핀 금메달리스트인 아놀드아티엔자(웰터급)는 대회 폐막 2일후 대통령궁으로 불려가 라모스대통령의 따뜻한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 장면이 한 일간지의 1면에 실리고 어떤 신문에서는 사실상 써 격려했는데, 제일 부러워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선수들이었다.

평소에도 1단기사에 만족해야 했던 그들은 태권도에 쏟는 필리핀 언론의 관심에 우선 놀란 것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 선수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남녀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한데는 선수와 코칭스텝의 고생이 남달랐겠지만 박창락 단장(대전시부회장) 윤종완 감독(상명여대교수)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선수단의 분위기를 상승무드로 이끌었다.

여자선수들이 대회 2일까지 대만에 밀려 종합우승이 사실상 힘들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며 선수들을 감싸고 격려했다.

평소 화끈한 성격대로 이번대회서 「원샷선생」이란 별호를 얻었던 박단장은 경기에 패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선수를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 태권도에 대한 선배들의 무한한 애정을 대변해줬다. **태권**

# 대한태권도협회 '94년도 주요 사업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 14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의 사업 및 수지결산을 승인하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1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대한태권도협회는 94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1. 각종 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우수한 선수의 육성과 국제대회의 제패를 성취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2. 태권도 한마당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성인 수련 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며,
3. 특정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범단 파견을 추진하여 중주국 협회로서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4.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비를 전액 법인화 기금으로 적립, 운용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4년도 대한태권도협회의 각종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회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경기의 석권 8체급 중 4체급 파견, 금메달 3개이상 목표

오는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34개 종목에 337개의 메달을 놓고 아시아인들의 스포츠제전이 펼쳐진다.

태권도는 86서울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정식

종목에 채택됨으로써 남자 8체급 경기가 10월 8일과 9일 히로시마 아끼워드 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지게 된다.

한국은 4개체급(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에 대표선수를 파견하게 되는데 8개체급 중 4개체급만을 파견하게 된것은 1개국 4체급 출전 제한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때도 남자부 4체급(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을 파견하여 금3, 동1을 따냈고 93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위의 체급에서 금3개를 따낸 바 있다.

한국대표팀은 4체급 중 3개체급 이상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의 상위입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93년 12월에 94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표 1위를 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하여 국제 대회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3월에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평가전을 실시하여 최종 진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외에 한국 대표선수단이 파견되는 '94년도 국제대회는 다음과 같다.

- ▲ IOC 100주년 기념 서울 국제 태권도선수권대회  
일 시: 94. 4. 22~23.  
장 소: 장충체육관  
초청국: 한국, 스페인, 미국, 호주  
주 최: 세계태권도연맹  
주 관: 대한태권도협회



### ▲ 제3회 베트남 국제 태권도선수권대회

일 시: 94. 7. 15~17.

장 소: 베트남 호치민

### ▲ 94년도 월드컵 대회

일 시: 94. 7. 21~23

장 소: 케이만군도

## 제3회 태권도 한마당, 국제행사로 규모 확대 태권도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도 마련

올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질 올해의 태권도 한마당은 국내 260만 회원은 물론 6개 해외지부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태권도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로 성대한 태권도 축제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94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 국내대회로 2년전부터 개최해온 태권도 한마당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의 후원아래 국제대회로 확대 발전시켜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겸해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의 태권도 동호인들의 잔치로 펼쳐질 이번 한마당대회는 태권도 중주국방문을 희망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한마당 행사기간에는 태권도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 사진 전시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태권도에 대한 사진 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전시회를 갖게 될 사진 전시회는 체육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96 법인화위해 기금적립

문화체육부 및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 법인화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해 1억 7천2백만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비를 전액 법인화 기금으로 적립한 대한태권도협회는 자체 적립금이 5억원 확보되는 96년도에 문화체육부의 5억원 지원금과 함께 10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법인설립을 추진

## 제 1회 태권도 사진공모전

■ 응모기간: 1994년 4월 1일~9월 30일

### ■ 작품내용

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나. 태권도의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내용  
다. 소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史的 자료 사진

■ 사진규격: 11"×14" 이상 제한없음(사진설명: 200자 원고지 1매)

■ 제출처: 대한태권도협회(TEL: 420-4271~3)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7호(우 138-678)

■ 발표: 1994년 10월 15일 일간스포츠 공고

### ■ 상 품

대상 1명: 뉴욕 왕복항공권 2매(문화체육부장관상)

금상 1명: 샌프란시스코 왕복항공권 2매(대한체육회장상)

은상 2명: 오끼나와 왕복항공권 2매(후원사 사장상)

동상 3명: 도야마 왕복항공권 2매

가작 10명: 코닥카미오카메라 1대

입선 20명: 코닥필름 20개

하게 된다.

경기단체의 법인화는 문화체육부가 지난 90년부터 경기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권장해온 것으로 법인화할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 교류 강화

태권도 중주국 협회로서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 추진과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쿠바에 순회 시범단을 파견함은 물론 불가리아 등 동구권에 태권도 지도자를 파견한다.

협회는 92년도에 최초로 중국에 시범단을 파견하여 북경과 연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바 있으며 93년도에는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등 중국

### 94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1	14 28 ~ 30	'9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올림픽회관 마닐라
2	18 19 22 ~ 24 25 ~ 26	경기규칙강습회(심판) " (코치·감독) 군 심판강습회 상임심판교육	올림픽회관 올림픽회관 3군 올림픽회관
3	5 ~ 7 8 ~ 10 16 26 ~ 28 29 ~ 31	대구지역 심판강습회 전북지역 " '94년도 국가대표최종평가전 대전지역 심판강습회 광주지역 심판강습회	대구구 전주 국기원 대전 광주
4	1 ~ 3 6 ~ 8 11 ~ 17 22 ~ 23 26 ~ 29	제주지역 심판강습회 서울, 경기, 강원지역 심판강습회 '94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중·고·일) IOC 100주년 기념 서울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제4회 용인대학교총장기대회	제주 국기원 체조경기장 장충체육관 88체육관
5	5 ~ 6 6 ~ 7 19 ~ 20 28 ~ 31 29 ~ 6. 3	제15회 태권왕겨루기대회 제21회 대학연맹개인대회 '94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21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국기원 수원실내체육관 국기원 광주 잠실학생체육관
6	13 ~ 17 28 ~ 30	제29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회 제6회 경희대총장기대회	부산 수원실내체육관
7	15 ~ 17 21 ~ 23	제3회 베트남오픈국제대회 '94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	호치민 케이만군도
8	19 ~ 26 26 ~ 27	제5회 문화체육부장관기중고대회 제17회 회장기전국대학대학대회	잠실학생체육관 국기원
9	5 ~ 10	제10회 국방부장관기단체대회	상무체육관
10	8 ~ 9 27 ~ 11. 2	제12회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경기 제75회 전국체육대회	히로시마 대전
11	2 ~ 6 15 ~ 17 26 ~ 28	제4회 세계 대학선수권대회 '94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제3회 태권도 한마당	그리스, 아테네 국기원 잠실학생체육관

## 제1회 태권도 사진 공모전

#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 추진위원회 결성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 등 4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에 김집 전체육부장관 선임

2천년 올림픽 태권도의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올림픽채택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월 15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집 전 체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인 조시아 헨슨(미국)씨를 추대하는 등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올림픽 채택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4일과 5일 파리에서 열리는 103차 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가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의 종목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IOC 프로그램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IOC 집행위원회에 상정, 승인을 거쳐 IOC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5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프로그램위원회에 태권도 뿐만 아니라 9개 스포츠 종목의 보고회가 있었는데 IOC 프로그램위원회의 추천종목 투표에서 11:9로 태권도 종목 추천이 부결된 바 있다.

올림픽 채택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OC 프로그램위원회에 태권도가 안전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기획, 운영, 재정, 홍보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분과위원장 장주호(현 KOC부위원장, 경희대 체육대학장), 운영분과위원장 김용래(전서울시장), 재정분과위원장 박용성(OB그룹 부회장, 대한유도협회장), 홍보분과위원장 박갑철(아시아체육기자연맹 위원장, 조선일보 부국장겸 세계체육기자연맹 부회장)씨가 임명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집행위원회를 결성, 집행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업무 등을 검토, 추진위원회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추진위 집행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WTF는 올림픽채택추진위원회와 함께 4월22일과 23일 양일간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미국 스페인 호주가 출전하는 4개국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에는 IOC 프로그램위원회위원들이 특별 초청된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프로그램위원들에게 태권도 경기의 채택의 공정성 및 과학성을 보여주고

**올림픽 채택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4일과 5일 파리에서 열리는 103차 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가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의 종목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

의 4대 대도시를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을 보인바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범단을 파견함으로써 중국에 태권도협회를 결성하는 등 효과를 높이고 있다.

불가리아에는 92년 10월에 최초로 장경수사범이 파견된 이래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로 외교적 성과를 높이고 있어 주불가리아대사로부터 장경수사범의 파견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받아 올해도 불가리아에서 태권도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태권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줄 계획이다.

#### 태권도 올림픽 종목채택추진위원회 명단(49명)

최세창(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집(전 체육부장관)  
 김용태(국기원 이사 겸 전 서울시장)  
 백창현(국기원 이사 겸 서울시의회회장)  
 최덕빈(국기원 법률고문, 변호사)  
 엄윤규(WTF 부총재 겸 국기원 부원장)  
 이종우(WTF 부총재)  
 이금홍(WTF 사무총장)  
 유도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창신(문화체육부 차관보)  
 조준순(대한정규협회 회장 겸 서울시의회 의원협회의회장)  
 최원영(ATU회장)  
 김봉식(국기원연수원부원장)  
 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성규(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조동원(국제로터리 한국지국장)  
 박갑철(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박세호(SBS 스포츠국장)  
 Mr. Josiah Henson(WTF 부총재)  
 Mr. Manuel Marco Salla(WTF 부총재 겸 스페인

협회장)  
 Mr. Abdel Karim Darwish(WTF 부총재)  
 Mr. Nobuyoshi Takahashi(WTF 재무위원)  
 Mr. William Hybl(전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Mr. Okawara Shiro(일본태권도협회 부회장)  
 Mr. Coleman C.Y. Lee(WTF 집행위원)  
 정 화(WTF 집행위원겸 USTU 회장)  
 Mr. Kris Wiluan(WTF 집행위원)  
 Mr. stefan Klawiter(WTF 집행위원겸 독일협회장)  
 박선재(WTF 집행위원겸 이태리협회장)  
 Mr. Rogelio F. Lomazzo(WTF 집행위원겸 알제틴협회장)  
 Mr. Adalberto Escoto(WTF 집행위원겸 PAT-U회장)  
 Mr. Khalifah A.A. Al-Sabah(WTF 집행위원겸 쿠웨이트협회장)  
 이태은(WTF감사 겸 캐나다협회장)  
 노계형(호주협회장)  
 Mr. Sergei Fedulov(러시아협회장)  
 안경원(전 USTU회장)  
 이상철(차기 USTU회장)  
 송덕영((주)필립모리스 코리아 사장)  
 김우규(대생기업(주)대표이사)  
 이낙원(사랑방 대표 겸 연세체육회부회장)  
 실원봉(대한제당 회장)  
 장봉용((주)진로발효 회장)  
 유영구(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정몽구(현대정공(주) 회장 겸 대한양궁연맹 회장)  
 박용성(두산그룹 부회장 겸 대한유도협회 회장)  
 박상하((주)대구주택 회장 겸 대한체육회 상임이사)  
 이우석(동아수출입공사 사장)  
 장주호(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  
 김 호(재미사업가) **태권도**

## 제 12 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

### 진승태(한체대), 김현용(경희대), 정광채(한체대), 김제경(상무) 태극마크

오는 10월 8일과 9일 히로시마 아끼워드 체육관에서 거행될 제12회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에 파견될 한국 대표선수가 선발되었다.

남자 4체급 대표(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를 선발한 이번 선발전은 하위체급 국가대표 1,2위자와 해당체급 1,2위자 4명의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최다승자를 선발하였다.

플라이급은 동아대의 최용훈, 한체대의 진승태, 춘천군청의 서성교, 한체대의 고동환이 경기를 펼쳤다. 이중 최용훈과 진승태, 서성교가 2승 1패를 거두는 동점으로 재경기를 실시하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재경기에서 진승태는 서성교를 3:2 판정승으로, 서성교는 최용훈을 2:0 판정승으로 이긴 가운데 진승태와 최용훈의 대전이 펼쳐졌다.

최용훈이 이길 경우 모두 1승

1패로 재경기가 펼쳐질 것이고 진승태가 이길 경우 바로 대표로 선발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관중들도 숨죽이고 경기를 관전했다.

1회전 진승태가 둘러차기로 몸통을 적중시키며 1점을 얻었으나 2회전 최용훈이 앞발 들어 찌기로 1점을 만회하여 동점을 이룬 가운데 3회전에 진출했다. 긴장된 상태에서 선수들의 마지막 한판이 진행되었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1:1 동점으로 이룬 끝에 진승태에게 우승이 돌아갔다.

페더급 평가전에는 경희대의 김현용이 한체대의 김인경을 1:0으로, 태성고의 이준희를 4:1로, 한체대의 양재철을 2:1 판정승으로 모두 이기고 대표로 선발되었다.

웰터급은 한체대의 정광채가 한체대의 김경훈을 3:2 판정승으로, 경남체의 김길훈을 2:0 판정승으로, 제주도협회 성의천에게 실격승을 거두고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헤비급은 상무의 김제경이 한체대의 이동환을 2:1 판정승, 상무의 박종범을 4:0 판정승, 경희대의 김정규를 2:1 판정승으로 눌러 3승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파견된다.

이로써 김제경선수는 92년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92년 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헤비급 1위, 93년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94년 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에 이어 아시안게임에도 도전하게 됨으로써 태권도계의 그랜드슬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한국대표선수 프로필

#### ▲플라이급: 진승태

소속: 한국체대

생년월일: 73.9.5

신장: 168

체중: 54

학력: 전주 완산국, 전주 완산

중, 경남체고, 한국체대

주요 경력: 92년 10회 아시아선

수권대회 핀급 2위/93년 제 11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핀급 1위



▲ 3월 16일 국기원에서 펼쳐진 국가대표 평가전 모습

▲ 페 더 급: 김현웅

소속: 경희대  
 생년월일: 72.10.30  
 신장: 176  
 체중: 63  
 학력: 잠실국, 배명중, 서울체고, 경희대  
 주요 경력: 94년 제11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 웰 터 급: 정광채

소속: 한체대  
 생년월일: 72.4.12  
 신장: 178  
 체중: 70  
 학력: 강동국, 한영중, 관악고, 한국체대  
 주요 경력: 94년 11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 헤 비 급: 김제경

소속: 국군체육부대  
 생년월일: 70.11.10  
 신장: 187

체중: 87  
 학력: 울산 병영국, 울산 중앙중, 울산공고, 동아대졸업  
 주요 경력: 92년 10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 92년 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헤비급 1위 / 93년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 94년 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IOC 100주년 기념 서울 국제 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남녀 전체 급 16명 선발**

오는 4월 22일과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스페인, 미국, 호주 등 4개국에 초청되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거행될 서울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될 남녀 한국대표선수 16명이 선발되었다.

3월 16일 국기원에서 펼쳐진

선발전은 94년도 국가대표 3위(2명)간의 대결로 펼쳐져 승자를 한국 대표로 파견하게 되었다.

남녀 대표로 선발된 체급별 승자는 다음과 같다.

▲ 남자부

핀 급: 석운용(용인대)  
 플라이급: 유상문(한체대)  
 밴 텀 급: 조진호(한체대)  
 페 더 급: 김동현(경희대)  
 라이트급: 박세진(영천시청)  
 웰 터 급: 김동민(한체대)  
 미 들 급: 정주석(상무)  
 헤 비 급: 하태경(춘천군청)

▲ 여자부

핀 급: 김진성(한체대)  
 플라이급: 최재숙(용인대)  
 밴 텀 급: 김은숙(용인대)  
 페 더 급: 윤명숙(상명여대)  
 라이트급: 박경숙(경희대)  
 웰 터 급: 김소연(경성여실고)  
 미 들 급: 이선희(용인대)  
 헤 비 급: 정명숙(경희대)

#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Stretching)

## 목 차

- ① 태권도와 에너지 시스템
- ② 무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③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④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
- ⑤ 태권도와 운동상해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최대의 효과 획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85호부터 연재되는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실장의 태권도 트레이닝 방법론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 지도자뿐 아니라 도장에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사범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윤 성 원/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유연성과 평가방법

체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반인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체력 요소는 근력,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체력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민첩성, 조정력, 순발력이 기초 체력에 포함된 체력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성장 및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인병 중 각 관절의 이상이 나타나는 관절염은 여러 발생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그중 각 관절의 운동범위에서의 근수축 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주변근의 근육 및 인대, 건의 경직에 의하여 유연성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관절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력이 불균형적으로 발휘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는데 임상적으로 상해가 없을 때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관절염이라 할 수 있는 류마치스 등의 관절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

태권도 운동에 있어서 동작 수행시 유연성은 바른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력 요소 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위의 공격 수행시 매우 필요한 체력이라 할 수 있다.

유연성은 관절 또는 일련의 관절에 있어서의 가동범위 즉 움직이는 범위라 정의할 수 있는데 관절의 가동범위는 관절의 가동성, 근육의 신축성, 인대의 탄력성에 따라 그 가동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은 2가지로 구분하는데 동적 유연성이라 하여 일정한 동작을 연속적으로 행할 때 관여하는 유연성으로 태권도 동작 수행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체력이라 할 수 있으며 체력 측정 시 이용되는 유연성 측정은 주로 정적 자세에 있어서 신체의 관절 굴곡 및 신전범위를 측정함으로

〈표-1〉 한국 국민의 뒷몸앉아 앞으로 굽히기(체육부 보고 : 1992)

(남자)

연 령	매우 약함	약 함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국 1	1.0 이하	1.1~ 5.7	5.8~10.0	10.1~13.5	13.6 이상
국 2	3.0 이하	3.1~ 6.0	6.1~10.0	10.1~14.0	14.1 이상
국 3	1.3 이하	1.4~ 6.0	6.1~10.0	10.1~15.0	15.1 이상
국 4	-1.0 이하	-0.9~ 6.0	6.1~11.0	11.1~15.0	15.1 이상
국 5	0.4 이하	0.5~ 6.0	6.1~10.0	10.1~14.5	14.6 이상
국 6	0.8 이하	0.9~ 5.0	5.1~10.4	10.5~15.5	15.6 이상
중 1	3.9 이하	4.0~ 7.7	7.8~12.5	12.6~17.8	17.9 이상
중 2	3.8 이하	3.9~ 7.5	7.6~13.5	13.6~17.1	17.2 이상
중 3	4.2 이하	4.3~ 8.3	8.4~13.8	13.9~20.0	20.1 이상
고 1	5.8 이하	5.9~12.5	12.6~17.6	17.7~21.8	21.9 이상
고 2	7.6 이하	7.7~13.8	13.9~20.2	20.3~25.5	25.6 이상
고 3	6.0 이하	6.1~14.5	14.6~21.0	21.1~24.6	24.7 이상
19 ~ 24	5.0 이하	5.1~12.0	12.1~21.0	21.1~25.3	25.4 이상
25 ~ 29	4.5 이하	4.6~12.0	21.1~17.2	17.3~22.0	22.1 이상
30 ~ 34	3.2 이하	3.3~11.0	11.1~17.0	17.1~21.5	21.6 이상
35 ~ 39	6.1 이하	6.2~10.0	10.1~15.8	15.9~22.5	22.6 이상
40 ~ 44	4.7 이하	4.8~10.0	10.1~16.0	16.1~21.1	21.2 이상
45 ~ 49	1.0 이하	1.1~ 9.0	9.1~14.6	14.7~20.2	20.3 이상
50 ~	-1.0 이하	-0.9~ 6.6	6.7~14.0	14.1~18.2	18.3 이상

(여자)

연 령	매우 약함	약 함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국 1	4.4 이하	4.5~ 7.5	7.6~11.0	11.1~14.5	14.6 이상
국 2	3.0 이하	3.1~ 7.0	7.1~11.0	11.1~14.0	14.1 이상
국 3	2.5 이하	2.6~ 6.5	6.6~10.9	11.0~14.0	14.1 이상
국 4	2.0 이하	2.1~ 5.9	6.0~11.0	11.1~15.4	15.5 이상
국 5	2.0 이하	2.1~ 5.4	5.5~11.5	11.6~16.0	16.1 이상
국 6	3.8 이하	3.9~ 8.5	8.6~14.0	14.1~19.3	19.4 이상
중 1	4.5 이하	4.6~ 9.0	9.1~14.0	14.1~19.6	19.7 이상
중 2	6.6 이하	6.7~12.0	12.1~16.1	16.2~20.2	20.3 이상
중 3	8.5 이하	8.6~12.9	13.0~18.2	18.3~23.0	23.1 이상
고 1	9.6 이하	9.7~14.4	14.5~20.0	20.1~24.1	24.2 이상
고 2	9.0 이하	9.1~14.2	14.3~19.5	19.6~23.0	23.1 이상
고 3	10.0 이하	10.1~15.5	15.6~20.2	20.3~24.1	24.2 이상
19 ~ 24	10.0 이하	10.1~15.2	15.3~21.0	21.1~25.1	25.2 이상
25 ~ 29	8.5 이하	8.6~15.7	15.8~20.9	21.0~27.4	27.5 이상
30 ~ 34	9.4 이하	9.5~16.8	16.9~21.5	21.6~26.0	26.1 이상
35 ~ 39	10.0 이하	10.1~16.0	16.1~21.1	21.2~25.1	25.2 이상
40 ~ 44	8.1 이하	8.2~14.4	14.5~20.3	20.4~25.0	25.1 이상
45 ~ 49	8.0 이하	8.1~14.0	14.1~19.0	19.1~25.0	25.1 이상
50 ~	6.5 이하	6.6~12.8	12.9~18.0	18.1~22.5	22.6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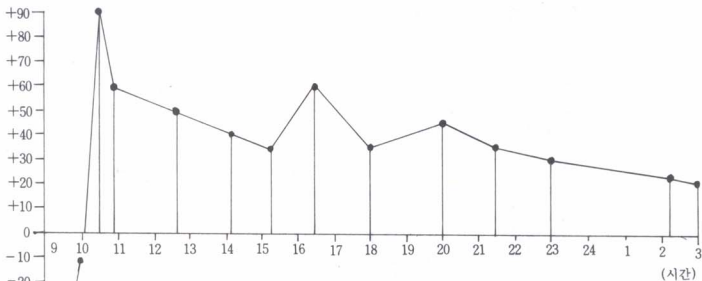
써 유연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정적 유연성이란 한다. 아마 태권도 도장에서 어린이나 수련인의 체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곳에서는 정적 유연성 측정 방법에 의한 평가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인의 경우 측정시 평가는 수치(cm)에 의한 기록치만 내리지 말고 다음 <표-1>에 나타난 국민체력 기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내린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제시한 유연성 기준치에서 측정 방법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측정대에서 서서 윗몸 앞으로 내리기를 실시할 경우 혈압이 높은 성인이나 조정력이 낮은 어린이의 경우 무리한 골곡에 의해서 허리상해나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자에 와서는 유연성 측정시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의한 유연성 측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때 측정시기는 되도록이면 오전 10시나 오후 4시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체의 관절의 경우 일차변동 즉 1일 시간변동에

의한 변동이 매우 크므로 측정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측정후 평가하여야만 신뢰성있는 자료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태권도 운동에 있어서 유연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격이나 방어시 모든 팔이나 다리동작 수행이 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리 공격에 있어서 고관절(Hip Joint)을 중심으로 많은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각 도장마다 양다리 벌리기 운동을 많이 실시하는 이유도 고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리를 이용한 공격 및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작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유연성이 매우 약한 어린이나 수련인에게 무리한 관절의 가동성을 요구하게 되면 유연성 향상운동이 오히려 인대나 건의 파열 뿐만 아니라 뼈의 끝부분인 골두가 관절이 전·후·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캡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위에서 빠지는 운동상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수련인의 유연성의 정도를 잘 파악하여 무리한 관절의 가동성 운동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강도를 서서히 점증시켜 안전하면서



(그림-1) 1일 시간에 따른 관절의 운동범위(Ozolin: 1971)

도 가동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방법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의한 인대 및 건 그리고 근육강화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방법 중 스트레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2. 스트레칭(Stretching)

스트레칭이라 함은 근육에 자신의 의지력으로 저항을 가함으로써 근육을 신전시키는 동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쉽게 풀이하면 근육을 늘리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주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근육에 예비 근수축 운동을 실시하게 하여 활동시 원활한 근육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크며 운동시 무리한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으로 운동상해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시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집중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수련인의 체력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 운동을 본 운동 수행시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운동활동 시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실시할때 다음과 같은점을 주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첫째, 정확한 자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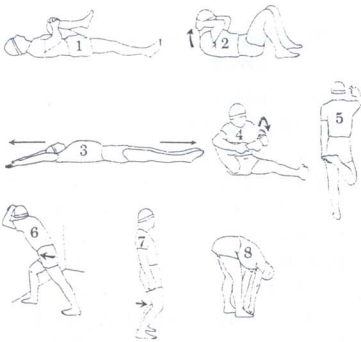
어린이의 경우 스트레칭이 지도시 다소 힘들다고 말하고 있으나 몇가지 동작을 취하게 한 뒤 신전되는 근육부위에 지도자가 직접 손으로 감지하여 교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쉽게 스트레칭 요령을 어린이에게도 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수련인에게도 정확한 동작에 의한 신전시키려는 부위가 정확히 수축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시켜야 한다.

둘째, 스트레칭 실시시기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

성장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정확한 자세를 유지시키는 지도는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허리의 만곡부위가 나타나야 성인으로 성장하여 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듯이 아침 기상후(그림-2 참조), 학교 및 직장에서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또는 TV를 오래 동안 시청할 때 및 운동을 실시하기 전의 근육온도 상승에 의한 본 운동 수행력 향상 및 상해방지 등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스트레칭은 근육의 통증이 약한 것부터 시작하여 강하게 발전시킬 것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할 때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근육, 인대, 건 부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전운동을 강하게 실시하면 근육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시 근육에 약한 통증을 나타나게 하면서 실시한 다음 스트레칭 운동이 숙달되면 서서히 강한 신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연성 향상에 매우 효과가 높은 것이 스트레칭 운동이지만 자칫 가벼운 상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도자는 정확한 방법에 의한



(그림-2) 아침 기상후 실시하는 스트레칭 방법

신전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흡법과 시간제기

스트레칭 운동은 실시할 때 호흡은 신전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호흡을 내쉬고 이완할 때 들이 마시는 호흡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로겠지만 근수축이 일어날 때 숨을 내쉬어야 한다. 또한 신전시 약 5초간 동작을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간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 5초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신전부위를 풀고 이완시키는 동작을 3~5회 실시한다. 만약 도장에서 매 수련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다면 구태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전시키려는 부위를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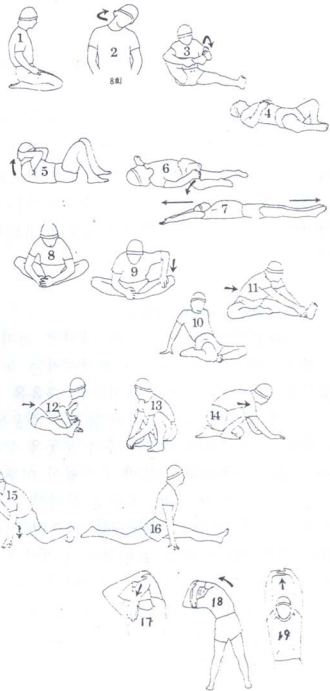
다섯째, 발바닥과 모든 동작은 정위치가 되도록 지도한다.

스트레칭 운동시 거의 모든 동작은 발바닥이 바닥에 붙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때 신체는 정자세 즉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리 뒷부분 즉 햄스트링(힙프 바로 아래 부위)이나 종아리 부위를 신전시킬 때 발바닥이 바닥에 위치하지 않으면 바른 신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위치에 의한 동작 수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주 운동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되 준비 운동후와 본운동 후에 실시할 것

간혹 다른 종목에서 운동시 워밍 업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하고 난 뒤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워밍 업이라 할 수 있다. 준비운동으로 체조나 가벼운 달리기 운동으로 근육의 온도와 혈액 순환을 조금 빠르게 실시하게 한 뒤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스트레칭 운동은 준비운동후 실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리운동으로 실시할 때는 본 운동 후 바로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정리체조로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할 것.

이상과 같이 경기력이나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그림-3) 태권도 본 운동 수행전·후의 스트레칭 운동방법

태권도를 실시할 때 유연성은 매우 중요한 체력요소로 작용하므로 전면적 체력 향상이나 보다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또한 운동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 수련 때마다 운동전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침기상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라고 지도한다면 건강한 신체형성을 위한 바른 운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Bob Anderson 이 저술한 Stretching 책을 보신다면 많은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태권**

# 최고의 태권도장을 위하여

## 목 차

- 1 글을 준비하며
- 2 체육관현황 및 우리의 모습
- 3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 4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1)
- 5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2)
- 6 글을 마치며

## 5 프로그램 작성 및 유의사항

지금까지 네번의 글을 통해 체육관의 현황과 우리의 모습,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지난 호와 이번호의 연재를 통해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네번의 글을 쓰며, 가능하면 쉽게, 학문적 표현이나 숫자에 의한 결과 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으나 독자들에게 나의 뜻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모르겠다.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 나의 바램도 이 글을 읽고 단 한명의 가족이라도 나의 뜻을 이해하고 도장에서 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호에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구성요소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적용횟수와 적용시기 그리고 대상의 구분을 설명했다.

표 1(87호에 게재)은 한달간의 수련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구성내용은 태권도 지도시 중요시되는 영역, 즉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발차기 등과 그밖의 지도할 수 있고 지도해야 하는 여러내용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다.

표 1을 보면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준비 되었으며 지도의 연계성을 띠고 있다.

이말은 가능한 지도내용과(수련생 입장에서) 가르침의 내용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어제, 오늘, 내일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개념은 주간단위이며 주간단위는 월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체적인 교육지도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달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달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각 주 단위의 교육목표를 정하고,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단위의 교육 구성내용과 구성요소의 적용횟수도 달라져야 한다.

## 이 중 천/

-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졸업
- 태권도 프로그램 연구회 회원
- 경기도 여주 오학체육관 관장

예를들어 4월달의 교육목표가 “수련생들의 겨루기 능력향상”이라면 그달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을 한달을 기준으로 4등분해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준비하는 것이다.

첫째주: 겨루기의 step 내용과 단일공격 능력의 습득.

둘째주: step을 이용한 연속차기 능력과 전술훈련

세째주: 연속공격 능력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능력의 훈련

네째주: 실전겨루기

위의 내용은 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한 것 같으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다. 그러나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을 읽고 표 1과 같이 독자의 체육관에 맞는 월간교육 내용을 준비하려 한다면 글을 읽는 것을 중단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먼저 본인이 지도할 수 있고 지도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적용하고픈 횟수 만큼 일정한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적용의 빈도수가 나뉘질 것이다. 그러면 작성자에 의해 중요한 구성요소가 구분된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서른한칸의 공간을 준비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간에 작성자 주관에 의해 배열, 배치하는 것이다.

형성하겠지만 배치나 배열만도 쉬운 일은 아니나 몇 번 적어보면 일정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1년치 교육내용을 준비하려고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질 말고 우선 한달간의 교육내용만 준비하자.

그리고 난 후 계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 밖에 기타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는데 따라 한달간의 교육내용 중 30%의 변화만을 사용해도 몇 달간의 교육내용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와 준비과정을 거치면 그날의 주 교육내용을 표 2에 맞춰 세분화하면 되는 것이다.

표 1을 보면 구성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성요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며 그 구성요소들 중 각 체육관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겠다.

표 2(87호에 게재)는 일일시간표의 예문이다.

어느 체육관이든지 대략 표 2와 같은 내용과 순서로 하루하루 교육내용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표 2에서 중요한 것은 표 1에서 그날 교육내용을 준비한 것 중 중요하다고 결정된 것(주 교육내용)을 기본운동, 태권도, 보조운동란에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부분을 지도자의 재량으로 하나로 통합해도 무방하다. 그 체육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체육관의 관장이나 사범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환경에 맞춰야 한다.

표 1에서 월요일 수련내용은 월요일올림픽과 체력운동이다. 이 월요일올림픽과 체력운동을 태권도와 보조운동부분에 적용,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체육관의 수련시간은 60분을 기준으로 준비했을때 60분을 세분화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준비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5분.

체육관마다 기본이라 구분된 내용을 수련하는데 10분, 혹은 명상의 시간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날의 주 교육내용을 수련하는데 30분(나는 이 부분을 표 2에서 태권도 보조운동이라 구분, 표현했음).

즉 월요일올림픽 15분내지 20분

체력운동 15분내지 20분, 평가에 5분.

정리운동과 생활지도, 출석확인 10분.

세분화해서 나열하니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며 기존의 체육관 지도방법과 교육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이미 모든 체육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은 출석이다. 출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방법-이름부르고 대답하고 하는 단순한 통제기능과 확인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체육관 한 쪽 벽에 체육관 모든 수련생의 명단을 적어 놓고 이름위 출석 확인란에는 본인이 수련이 끝난후에 세가지 색연필을 준비해 놓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색, 보통으로 수련한 색, 열심히 수련하지 않은 색을 정해 놓고 수련생 본인이 그날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스스로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수련에 최선을 다하게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달 후 시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출석 방법은 관장이나 사범의 많은 관심과 관찰,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없이 최고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출석제도는 하나의 방법과 예문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방법과 아이디어의 개발과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기본운동은 체육관 고유영역에 들어간다. 체육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유급자 과정의 초급 기술들을 대부분 치칭하며, 발차기도 마찬가지로 쟀다.

다음은 평가부분이다.

일일평가란, 그 날의 주 교육내용, 즉 태권도 보조운동의 수련내용을 수련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숙지하였는가는 그날의 수련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고 이미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표 3(87호에 게재)은 오늘의 교육내용 중 주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지도 방법을 세분화 해놓은 것이다.

즉 월요일툰피이라는 교육내용 중 달리기를 가르친다면 그 교육대상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세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교육자의 수준과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처음으로 교육계획안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큰 개념으로 오늘은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큰 주제 내용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지금까지 도장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재하면서 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체육관 고유의 경쟁력을 갖춰라.

교육내용을 준비하다보면 공통본모가 있는데 겨루기, 기본동작, 품새, 발차기, 호신술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본모 말고 그 체육관만의 고유한 교육내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다른 체육관에서 하지 않는 것이나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이라든지 또는 학교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소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구성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겠다.

우리의 체육관 현황 및 우리의 모습이라는 첫번째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체육관 외적인 경쟁대상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이 필요하다.

평범하거나 보편적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어떠한 분야든지 태권도장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

## 2. 보여지는 교육을 준비하라.

이 말은 『태권도를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말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느낄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 체육관에 보냈더니 예절이 좋아 지더라,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등의 발전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부형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을 찾아내고 준비, 구성하는게 좋겠다.

한예로 여기 개인신상카드(표참고,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십시오)를 매달 또는 분기별로 집으로 보내 자녀의 변화과정을 스스로 느끼고, 학부모가 볼 수 있는, 보여지는 태권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 3.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라.

이 주제는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현재 개인의 수준보다 상위개념의 교육 수준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재미있게 또는 흥미를 유발하라는 표현의 본뜻이 왜곡 굴절되어서는 안되겠다.

### 4. 월간교육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자.

월간 교육계획안을 준비할 때 교육내용을 쪽 적어놓고 막연히 어떠한 원칙이나 목표, 방향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서러한칸을 비워놓고 월간 교육목표를 정하고, 월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소단위의 목표를 주 단위로 준비해서 하나 하나 채워나가면 의외로 쉽고 간단히 작성할 수도 있다.

월간 교육목표의 설정은 그달의 교육방향을 잡아주며 무엇을 가르쳐야겠다는 지도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겠다.

### 5. 원칙을 지켜라.

가르침에 있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무계획적인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다.

일선 관장들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르침에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감독,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본인의 노력과 준비여하에 따라 최대의 장점이 될 수도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최대의 자유와 최대의 주관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수련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조금 변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오늘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도와 운영이 분리돼 있는 경우는 운영자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 ⑥ 글을 마치며

처음 연재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는 지금의 태권도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처음 체육관 환경을 다룰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경쟁의 대상 속에 우리의 모습도 포함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는 「도장 거리제한 폐지」라는 제도로 도장간 무한경쟁의 표면위에 서게되었다.

거리제한이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존재했던 과거를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경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어렵다, 힘들다는 말들이 어제 오늘 들었던 말도 아닌데 웬지 학원 개방이다, 거리제한 폐지다 하는 말을 듣는 요즘 그 느낌은 새롭다.

우리 태권도장은 무엇이든 승리할 것인가.

이 혼돈의 상황, 이 과도기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정리될 것이다.

정리가 되었을때 우리 태권도장은 어떠한 모습일까?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까? 방법은





##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어린이의 변모에 보람과 긍지, 성취감”

**송**과구 오금동에 자리잡은 중앙체육관을 들어서면 초록색 매트가 깔려있는 넓은 도장이 우선 뛰여 놀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것 같다.

태권도 수련시간보다 일찍 도장에 나온 어린이들은 뛰고 달리고 구르며 신나게 놀고 있다.

학부형들의 태권도 상담을 받는 태권도 사무실은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 수련생들의 수련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부터 각종 태권도 포스터, 상장, 상패,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태권도 관련기사까지 스크랩되어 있다.

수련생들의 모든 관리는 컴퓨터로 행해지고 있고 수련생의 몸무게와 키를 재는 기기며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다.

상담실 옆에는 탈의실이 있어 학교나 회사에서 직접 도장으로 오는 수련생들이 옷을 갈아입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도장운영에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을 위한 도장 시설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런대로 어려움은 없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라는 임성근 관장은 직접



▲임성근 관장

차량을 운행하며 수련생을 데려오고 귀가시키고 있다.

중앙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은 200여명, 오후 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5개반 수련시간이 있는데 중고생을 비롯한 성인부 30여명을 제외하곤 모두 유치부 및 국민학생이 대부분이다.

태권도 교육은 월간계획표에 따라 진행되는데 매월말 가정통신문을 통해 다음달 수련계획표가 가정으로 발송된다.

주 5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3일간은 태권도 지도, 2일은 학교체육으로 구성되어 주로 뽀름, 구르기, 줄넘기, 매트, 공놀이, 달리기 등 여러 가지 체육을 실시한다. 계절별로 캠프를 실시

하고 방학이 있는 달엔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데 지난 겨울방학에는 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볼쇼이 서커스를 관람하였다. 임성근 관장은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해 산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선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재미있게 받아들여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증대됩니다.』는 임성근 관장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 교육 계획표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태권도협회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준다면 일선도장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클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중앙체육관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U.S. TAEKWONDO COLLEGE(관장 정진영)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방학을 맞아 교환 방문 친선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92년도에 미국 자매 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때 19명이 참가하였는데 미국에서의 태권도 인기에 수련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관광지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미국의 태권도 수련생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정진영 관장이 미국의 수련생을 데리고 중앙체육관을 방문, 도장 수련생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중앙체육관 수련생들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올해 20여명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의 교환방문 경기를 통하여 수련생들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지만 임관장으로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돌아봄으로써 도장운영방법을 많이 배워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도장이 대형화되어 있으며 체인화되어 있습니다. 도장 관리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을 운영하듯이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도장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태권도가 한국 고유 문화로서



▲ 중앙체육관 수련생들의 즐거운 모습

는 유일하게 세계화에 성공하여 해외에서 인기있는 무도 스포츠로 자리잡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현실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나 해야 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도장에서 성인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는 임관장.

중앙체육관에 성인들이 가끔 태권도를 수련해 보겠다고 오는 경우가 있으나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라 어색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임성근 관장은 무엇보다도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어린이들이나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임성근관장은 오는 3월에 분

당에 제2의 중앙체육관을 개관하게 된다. 시설이나 교육방식이 모두 현재의 중앙체육관과 같다. 중앙체육관의 마크에서부터 차양색깔까지도 같을 것이라고 한다. 중앙체육관의 제1체인 점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태권도장을 열심히 운영할 것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뛰며 생활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늘 젊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어린이들이 도장에서 수련하면서부터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때 보람과 긍지,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임성근관장은 앞으로 제2, 제3의 중앙체육관 체인점 개설을 꿈꾸며 태권도장 운영에 평생을 걸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 240여명의 수련생들, 우렁찬 “태권” 함성

“우 리 충남 지역에 훌륭한 선배 사범님들과 우수한 태권도장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충남 대표로 우수도장상을 받은 김봉환사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주공체육관에는 현재 약 240여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도내 태권도장 중 가장 많은 수련생들이 수련하고 있는 도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수련생을 지도

하는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주공체육관에서 배출한 유단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주공체육관의 태권도 지도 목표는 “열심히 뛰고 바르게 생각하며 자신있게 행동하는 태권도인”의 육성에 두고 있다.

“태권도의 무도정신과 현대 체육의 전인적인 사회인 육성을 접목하여 태권도 수련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의바른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항상 웃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함께 사회체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병행하고 있다.

태권도 교육은 월간, 일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가운데 기량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잘 짜여진 교육 구성으로 태권도 수련생이 장시간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몇달 배우다 마는 태권도가 아니라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닦는 무도 태권도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유치부에 다녔던 수련생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하고 국민학교 수련생들은 고학년에 올라가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는 수련생들 중에는 태권도 선수로서 자질을 보이는 어린이도 많아 이들을 조기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들은 중고등부로 이 어지면서 충남 태권도의 재목으로 성장, 충남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겸비한 도장을 마련하여 훌륭한 태권도인들을 지도하는 것이 꿈이라는 김봉환사범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무엇보다도 태권도를 바르게 인식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태권도인이 되어 주길 당부했다. **태권**



▲수련생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김봉환 관장

## 25년간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 전북 태권도 위상 높여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김경수 관장

“**다**른 우수한 도장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후진양성과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관장은 25년여 동안 태권도장의 지도자로 활약해 오면서 3천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다.

김경수관장은 전북태권도협회 이사 및 감사, 대의원을 다년간 역임해왔으며 현재 정주시협회 실무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도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생활체육 차원의 태권도 인구 저

변확대를 위한 노력, 엘리트 체육의 일환으로 우수선수 양성으로도 대표를 배출, 전북 태권도 위상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경수 관장이 태권도에 입문한 것은 14살 때인 1960년도로 정읍 도장의 신재섭관장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승단후에는 정읍도장에서 다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했고 1980년 3월5일 초원체육관을 개관하였다.

도장을 운영하면서부터 정주시내의 초중고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현재 정주경찰서 무도사범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김관장은 태권도 지도에 있어 태권도 기술습득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격양성을

목표로 바르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태권도인 육성에 지도의 역점을 두고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해오는 동안 지금까지 제자들 중 한명도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김관장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초원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운 수련생들 중에는 이미 태권도장을 개관한 제자만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다.

지난 2월 미국에서 개최된 U.S 오픈태권도대회에 참석하였는데 미국선수들을 비롯한 외국의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김경수관장은 중주국으로서 실력있는 태권도 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장래의 희망으로 태권도장을 확장하여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외에도 여가를 이용해 태권도장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방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문무를 겸비한 태권도인들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기■**

## 소개할 때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씀으로써 예의바른 태권도 가족이 되어야겠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낮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인사말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 말로 자문위원회는 ‘처음 뵙겠습니다.(또는 ‘인사드리겠습니다’)(저는) 아무개입니다.’를 표준안으로 택하였다. 자신을 소개할 때 첫 인사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뵙습니다’보다는 ‘뵙겠습니다’가 운율면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또한 완곡한 표현이어서 이것을 정형으로 삼았다.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때 ‘안녕하십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상대방에게 소개한 후라면 몰라도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자신의 성(姓)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라고 합니다.’, ‘○○○입니다.’, ‘○○○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거만한 인상을 주거나 옛말투이므로 겸손한 현대말 표현인 ‘○○○입니다.’를 정형으로 택하였다.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틀에 상대방이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신상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부탁의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이러한 말들은 기본적인 소개말의 중간이나 뒤에 붙게 마련이다. 자신의 직장을 말할 때는 ‘○○에 근무하는’보다는 ‘○○의’ 또는 ‘○○에 있는’이 좋다.

대화에서는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표현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 “저의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 ○자 ○자 이십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이 현실적으로 어색하고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이십니다.’ 보다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저의 아버지가 ○○○이십니다.’ 아니면, ‘저의 아버지가 ○○○씨 이십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의 결과 정형으로는 전통을 따라 ‘○자 ○자 이십니다.’ 하는 것을 택하였다.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남에게 소개하는 경우에 ‘○(성) 가(哥)’, ‘○○(본관) ○(성) 가(哥)’라고 해야 하는지, ‘○ 씨(氏)’, ‘○○ ○씨(氏)’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다. 예로부터 귀문(貴門), 비족(鄙族)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자신의 성을 말할 경우에는 ‘○ 가(哥)’ 또는 ‘○○○ 가(哥)’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 이미 관용적으로 굳어졌고, 자기의 성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므로 ‘○○ ○씨(氏)’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자기의 성에는 ‘가(哥)’로 함이 좋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자문위원회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 자기의 성이나 본관을 말할 때는 ‘○가(哥)’, ‘○○ ○가(哥)’로, 남의 성을 말할 때는 ‘○ 씨(氏)’, ‘○○ ○씨(氏)’를 정형화한 말로 택하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하는 것이 정형이다. 그러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안녕하십니까? ○○○입니다.’로 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 손아래엔 어미(語尾) 바뀌서

동년배이거나 손아래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하는 말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어미를 바꾸어 경어법에 알맞게 말하면 된다.

## 이성(異性)일 땐 남자 먼저

자신이 직접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에는 달리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된다. 자문위원회의는 이에 대하여 (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2) 손아래 사람을 순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는 규정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는 (1), (2), (3)의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젊은 자기의 남자 선생님과 어머니를 소개해야 하는 경우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옳다.

‘저의 어머니이십니다.’하고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고,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하면 소개 받은 사람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의 어미입니다.’ 하고 선생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한다.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소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대법에 따라 적절히 어미를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 직함 있으면 이름 뒤에

방송 매체에서 사회자가 20~30대 연예인을 소개하면서 ‘○○○씨를 모시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씨를 소개하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시청자나 청취자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어서 그 방송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소개 받는 사람보다 뒷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젊은 사회자가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씨’라고 소개하는 것이 무방하다. 다시 말하여 방송에서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씨’ 하는 것이 정형이 된다. 그러나 연로한 초청 인사인 경우에는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붙여 ‘○○○ 선생님, ○○○ 교수님, ○○○ 사장’ 등으로 함이 사회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서 자연스럽다. **태극권**

# 태권도 소식

##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권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여식을 갖고 우수도장상, 지도상, 우수선수상 등 3개부문의 유공자 52명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태권도의 생활체육유공자로서 제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도장운영으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범에게 수여한 우수도장상은 15개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16명에게 수여되었다.

93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탁월한 지도능력을 발휘한 지도자로서 15개 시도지부와 3개연맹의 추천을 받은 지도자 18명이 지도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난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18명의 선수에게 경기상이 수여되었다.

(표창 수상자: 행사기록에 수록)

### 장학생 36명 선발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경희대와 용인대 태권도학과 성적우수자 및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중고등학교 학생 등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8백 6십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중학생 10명에게 각 10만원, 고등학생 20명 각 20만원, 대학생 6명 각 6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 명단: 행사기록에 수록)



▲ 표창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최세창 회장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1994년도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94년도 각종 사업의 실행업무를 담당하게될 기술심의회 임원을 선임되었다. 김인석의장을 사령탑으로한 기술심의회 의장단 및 11개 분과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기술심의회 임원은 의장단을 비롯해 8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유입되었고 지난해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양영모씨가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여성분과위원장이었던 윤종완씨가 홍보분과위원장으로 보직을 이동하였으며 김강인 연구분과부위원장이 여성분과위원장으로, 연구분과위원이었던 이은송씨가 연구분과 부위원장으로 승격, 임명되었다.

경기규칙강습회 119명 수료

대한태권도협회는 1,2,3급 심판자격소지자 및 각팀의 감독과 코치를 대상으로 경기규칙강습회를 실시했다.

2월 18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강습회에는 심판자격소지자 203명, 코치 및 감독 216명이 수강했다.

올해의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게될 심판과 각팀 감독 및 코치 등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량한 경기장 풍토 조성 및 질서확립을 위해

- 의 장 : 김인석
- 부 의 장 : 이영근, 안영택, 김경지
- 지도위원 : 박부철, 배성실, 박덕규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		
기 획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양 영 모 김 석 련 김 상 복	마 명 수, 박 형 철, 장 명 수,	안 정 회, 김 진 광, 김 상 호,	유 승 옥 김 경 섭 김 상 익
경 기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김 용 길 김 갑 식 나 동 식	김 원 기, 김 성 배, 김 춘 배,	나 창 흙, 양 인 옥, 이 상 곤,	김 홍 식 홍 최 주 수 수 석
심 판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김 대 연 심 명 규 김 영 철	장 세 백, 최 복 현, 송 우 길,	장 창 영, 강 석 환, 오 수 곤,	이 천 수 차 청 철 고 영 희
심 사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고 철 성 김 근 수 김 임 중	이 한 현, 배 세 출, 최 완 길,	설 동 엽, 이 현 노, 성 임 계,	홍 배 중 황 성 수 성 임 택
상 별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오 함 속 김 춘 근 김 대 용	정 상 기, 조 창, 선 우 진,	장 이 식, 양 천 석, 박 종 필,	배 회 동 진 장 환 박 석 암
경 기 력 향상분과	위 원 장 부위원장	박 창 덕 진 중 의 이 백 운	황 영 갑, 권 오 민, 전 정 우,	김 영 회, 이 재 봉, 손 지 회,	유 수 철 문 원 재 권 혁 중
국 제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박 현 섭 유 분 규 김 화 룡	장 득 용, 장 상 구, 김 영 수,	최 명 수, 최 의 식, 윤 의 식,	오 원 걸 양 회 용 오 회 명 환
연 구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이 승 국 손 천 택 이 은 송	김 인 식, 강 태 선, 김 선 훈,	조 광 민, 안 용 규, 김 지 일,	김 영 선 영 세 형 강 세 찬 김 경 찬
홍 보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윤 종 완 진 중 호 강 성 철	홍 성 남, 김 동 임, 장 종 위,	김 진 회, 이 만 우, 김 병 숙,	배 지 영 지 택 수 김 택 훈 정 철 훈
여 성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김 강 인 박 필 순 정 오 심	김 준 태, 김 지 숙, 이 기 수,	박 영 옥, 박 정 오, 안 연 순,	박 기 정 기 옥 김 영 승 오 옥
생 활 체 육 분 과	위 원 장 부위원장	조 호 철 김 기 용 한 상 진	최 성 룡, 손 영 덕, 엄 영 섭,	심 재 권, 김 홍 배, 김 성 철,	이 동 수 강 승 길 강 대 인





▲경기규칙강습회 모습

여 매년초 실시하고 있는 경기규칙 강습회는 지도자의 자세(홍중수 부회장), 경기규칙해설(강원식 전무이사), 심판 수신호 실기(심명구 심판분과 부위원장), 토론(김대연 심판분과 위원장 진행)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수료생들은 올해 각 팀의 감독 및 코치로 임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심판자격소지자들 중에서 상임심판원을 선발하여 올해의 각종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하게 된다.

## 어린이 시범단 표창장 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국내외에서 태권도 시범을 통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해온 어린이 시범단 3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 수여식은 2월 18일 국민학교 졸업식날 거행되어 미동국민학교 졸업생 17명과 신도림

국민학교 14명, 상도국민학교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동국민학교와 신도림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은 각국의 IOC 위원 및 수많은 국내의 체육계 인사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통해 태권도 홍보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88서울올림픽과 89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공개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인바 있으며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 <표창장 수상자 명단>

- 미동국민학교  
전명호 박민철 허웅찬 김문갑 이정구 홍진호 한상훈 이진아 이경수 정다운 백승훈 심윤택 김형창 이수현 홍정수 나영규 송지훈
- 신도림국민학교  
김철진 김동현 권오석 양태복 정연옥 김형수 이주환 최원철

김동현 민성영 김문종 이진우  
임민수 임종심

- 상도국민학교  
송영규

####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

김주훈 광주협회장 공로상,  
김인경 우수선수상 수상

체육 각부문별로 공적이 있는 체육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에서 광주시협회 김주훈회장이 공로상, 한체대의 김인경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2월 1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 의실에서 거행된 '94년도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은 레슬링의 박장순과 빙상의 유선희선수가 영예를 안았다.

공로상을 수상한 김주훈 광주시협회장은 현재 조진대 체육대학장으로 광주태권도협회장, 광주직할시 체육회 이사로 체육발

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인경 선수는 성동고등학교 3학년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기량을 자랑하며 90년 월드컵대회 편급 1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93년도에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밴텀급 1위로 선발되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밴텀급 금메달을 따내며 국위를 선양했다.

김인경선수는 93년도 최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도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태권도 93년도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태권도 간판급 스타이다.

#### 상임심판원 선발, 교육 실시

경기장내 판정시비를 없애고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90년도부터 상임심판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는 94년도

상임심판원 76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국내의 심판자격소지자는 1급 241명, 2급 804명, 3급 5156명 등 총 6201명으로 지난 2월 18일과 19일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한 203명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회의 추천을 통해 상임심판원을 선발하였다.

2월 19일 올림픽회관 2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상임심판원 교육은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한 경기규칙 해설, 심판수신호, 주부심 컴퓨터 채점기 사용방법에 대한 실기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상임심판원은 올해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심판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협회

#### 경기 대의원 총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화) 11시 서울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2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경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총회의 토의안건은 '93년 사업보고 및 수치 결산과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치 예산에 대한 승인이었으며 신중한 토의끝에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새해 사업 계획은 승품심사대회 24회, 승단심사대회 6회, 고단자 심사대회 4회, 경기



▲대한체육회 김운용 회장으로부터 우수선수상을 받는 김인경 선수

# 태권도 소식

대회는 시장기, 초·중·고 선수권대회, 협회장기 겨루기대회, 교육감기 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94년도 수입예산은 6억 2천 4백만원으로 의결 하였고 지출예산은 경상비 288,635,000원, 사업비 335,900,600원 등 총 624,536,200원을 확정 의결하였다.

아울러 특별회계 부문인 장학금 수입 예산 117,248,050원, 복지회비 수입예산은 303,576,797원을 확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1993년도 본회가 주최한 각종 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들을 선정하여 상급학교 진학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줌은 물론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코져 하였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국민학생 10만원씩, 중학생 각 15만원, 고등학생 각 20만원으로 총 43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장학생명단)

▲ 국민학생부 : 박기훈(중마국), 유정욱(은천국), 송성식(서교국), 유성호(광희국), 이은석(강덕국), 김일섭(은로국), 김종철(신상도국), 윤기용(본동국), 장보희(마천국), 고영민(광희국), 백승철(고덕국)

▲ 중등부 : 김상진(단대부중), 나병일(한성중), 김정준(용곡중), 김남규(덕원중), 양태영(오주중), 탁승래(용곡중), 김선진(단대부중), 박병주(동성중), 윤

## 박종률 사범 장남 박시현군, 한국체대 전체 수석 합격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한성체육관을 운영하며 직접 지도하고 있는 박종률 사범(7단, 상임 심판원 및 상임 심사위원)의 장남 박 시현군(94년 송곡고 졸업)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에 일반 학생으로 응시,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태권도 3단의 박군은 고교 1학년때 까지 각종 경기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바 있으며 2학년 부터 학업에 열중하여 학력고사에서 고득점을 올렸다고 한다.

박군은 장래에 사회체육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귀상(공릉중), 황동기(경수중), 오정현(자양중)

▲고등부 : 박정석(동성고), 김관필(송곡고), 박정우(서울체고), 이명복(리라공고), 정재균(서울체고), 김경훈(동성고), 장형철(리라공고), 이동완(서울체고)

## 승품 심사 대회 개시

서울시 협회는 1월 23일 제 409회 승품심사대회를 필두로 1994년도 승품심사대회를 개시 하였다. 이날 심사 대회는 1, 2, 3품 응심자 총 3,2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학부모 포함

약 8,000여명이 참가, 국기원 주차장이 흥수를 이뤄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심사대회 때는 태권도가족들이 술선해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엄운규회장은 「금년 한해도 한건의 안전 사고도 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질서요식으로 태권도 선진화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 신도림 국교 어린이 시범단 중국 파견

서울시 협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신도림 국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30명을 중국·홍콩·마카오에 파견, 시범대회를 가진다 있다.

어린이 시범단이 중국에서 시범대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어린이의 기개와 태권도의 우수성과 수련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다.

중국에서는 주해시 인민 체육관에서 시범을 연출, 1,000여명의 관중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심천시에서는 인민 경찰학교에서 시범, 560여 생도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마카오에서는 경찰학교에서 경찰과 생도를 상대로 시범을 보였고, 홍콩에서는 나살레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학생을 상대로 시범을 보여 양국 어린이의 친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귀국하였다.

<서울 박노규·김중오편집위원>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시범을 가진 신도림국민학교시범단

### 부산직할시협회

2월 심사, 2604명 합격

####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협회는 1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부산직할시협회는 94년도 제1회 승품단심사대회를 2월20일 구덕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총 26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발급현황을 보면 1품 1250, 2품 601, 3품 161, 1단 304, 2단 135, 3단 89, 4단 41, 5단 23명이다.



▲부산협회 대의원총회 모습.

# 태권도 소식

## 대구직할시협회

###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대구협회는 1월 28일 뉴영남 호텔 3층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93년도 사업보고에서는 6회 심사실시로 총 10,87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고 밝혔으며 93년도 결산액 146,089,669원을 통과시켰다.

'9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승품단 심사를 2.17, 4.17, 6.26, 8.28, 10.23, 12.11 대구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으로는 196,313,679원을 통과시켰다.

올해 대구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다음과 같다.

3.12~13 : 신인선수권대회겸 소년체전 2차평가전(대구체)

4.2 : 소년체전평가전 및 제75회 전국체전 1차선발(대구체)

5월 : 제4회 수창국교장기겸 태권왕대회(대구체)

6.11 : 제75회 전국체전 2차 평가전(대구체)

6월 : 대구소년체육대회(대구체) / 남대구 JC회장기대회(대구체)

7.2 : 제75회 전국체전 최종평가전(대구체)

7.26 : 제10회 협회장기대회(대구체)

9.11 : 제8회 지부별 친선대회(시민운동장)

9월 : 제10회 학도종합체육대회(대구체)

11.5 : 우수선수권대회겸 제9회 시장기 고등부대회(대구체)

### 제1차 심사, 2,271명 합격

대구협회는 2월 23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1994년도 제1차 승품, 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2,27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305명, 2품 500명, 3품 113명, 1단 170명, 2단 90명, 3단 70명, 4단 21명, 5단 2명이다.

### 1, 2, 3급 심판강습회 및 심판 보수교육 개최

대구태권도협회에서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1, 2, 3급 심판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습회는 강습자 700여명이 지원하여 전국최대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부문별로 보면 1급 심판강습자가 20명, 2급이 35명, 3급이 400여명이고 심판보수교육자는 150여명이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 인천직할시협회

###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인천직할시협회는 2월 20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33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발급현황을 보면 1품 817, 2품 344, 3품 74, 1단 55, 2

단 27, 3단 16명이다.

## 광주직할시협회

### 광주 태권도인 송년행사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에서는 93년도 모든행사를 마무리하고 93년 12월 18일 88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다채로운 송년행사를 가졌다.

김주훈 회장은 광주에서 개최한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그동안 선수생활을 통해 이 지역의 명예를 높였던 이계행 선수(31세, 전 국가대표)가 올해로써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로운 은퇴식을 가졌다.

광주협회와 체육관 협의회에서는 이계행 선수의 앞날을 축

하하며 각각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였다.

이계행씨는 현재 동신중학교 교사로서 후진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 1차 승품·단 심사대회 832명 합격

광주협회는 94년 2월 6일 첫 행사로 염주동 종합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83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838, 2품 169, 3품 49, 1단 112, 2단 60, 3단 42, 4단 15, 5단 2명이 다.

###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광주협회는 94년 1월 8일 국민생활관 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고 94년도 사업계

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확정하였다.

김주훈 회장은 93년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이어 94년 소년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임원 및 선수들이 총력을 다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 3~5월 행사 안내

3.14~15: 광주 소년체전-중등부 선발전

3.26~27: 제8회 초·중·고대항 태권도 대회(염주체육관)

3.29~31: 1, 2, 3급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국민체육관)

4.3: 국기원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염주체육관)

5.7~8: 제8회 태권왕기 초·중등부 대회 및 전국체전 1차 예선대회

5.28~31: 제23회 소년체육대회(광주개최)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 광주태권도인 송년행사에서 이계행 선수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는 김주훈 회장

## 대전직할시협회

### 경기규칙 강습회 실시

대전직할시협회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경기규칙강습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역 일선 코치 및 감독, 심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교

# 태권도 소식

육에서는 경기규칙 및 심판수신 호에 대한 실기 교육이 이루어 졌다.

## 승품단 심사대회

대전협회는 93년 12월 22일에 실시된 승품단 심사대회에서 총 1,7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승품단 발급현황을 보면 1품 728, 2품 263, 3품 55, 1단 465, 2단 115, 3단 52, 4단 33, 5단 13명이다.

## 제5회 교육감기 대회

대전협회는 93년도 마지막대회로 교육감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499명의 선수들이 참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번 대회의 종합성적을 보면 ▲초등부: 1위 성남국, 2위 와동국, 3위 대명국, ▲중등부: 1위 오정중, 2위 신탄진중, 3위 대전북중, ▲고등부: 1위 새일고, 2위 유성농고, 3위 충남기계공고가 차지했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

## 경기도협회

---

### 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협회는 93년 12월 23일 경기도협회 사무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93년도 사업으로는 각종 대회 및 교육과 승품단 심사대회에 대한 보

고가 있었으며 93년도 결산으로는 수입 250,337,952원, 지출 216,761,098원, 차기이월 33,576,854원이 통과되었다.

9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심사: 1.9, 2.6, 3.6, 4.10, 5.9, 6.5, 7.3, 8.7, 9.4, 10.2, 11.6, 12.4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다.

▲교육: 심판보수교육(3.11~12, 경기도체육회관), 태권도지도자교육(6.24~25, 수원실내체육관)이 실시된다.

### ▲대회

2.25~26: 제23회 전국소년체전 1차선발(위명업장)

3.19~20: 제23회 전국소년체전 2차선발(위명업장)

4.16~17: 제23회 전국소년체전 최종선발(위명업장)

4.22~25: '94 종별선수권대회(수원실내체육관)

5.13~14: 제75회 전국체전 1차선발(위명업장)

5.20~23: 제16회 경기도협회장기대회(수원실내체)

5월: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국군체육부대 태극관)

6.11~12: 제75회 전국체육대회 2차선발(위명업장)

7.8~10: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최종선발(수원실내체)

9.10~11: 시군지부 축구대항

9.23~26: 제13회 교육감기(수원실내체)

10.13~16: 제1회 경기도지사기대회(수원실내체)

94년도 예산으로는 188,799,050원이 통과되었다.

## 1월 심사 1,186명 합격

경기도협회는 94년도 첫 사업으로 1월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대회를 열고 1,18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발급현황을 보면 1품 507, 2품 246, 3품 69, 1단 158, 2단 55, 3단 49, 4단 92, 5단 10명이다.

## 강원도협회

### 대의원총회 개최

강원도협회는 1월 22일 강원도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93년도의 사업 및 94,871,456원의 결산이 보고되었고 94년도의 사업 및 예산 80,712,696원이 통과되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심사: 3.5(춘천), 5.12(원주), 7.15(강릉), 10.15(속초), 12.12(춘천) ▲심판보수교육(3.19, 춘천)

### ▲대회

4.2~3: 제17회 회장대회(춘천실내체육관)

4.9~11: 제23회 강원도 소년체전(춘천강원대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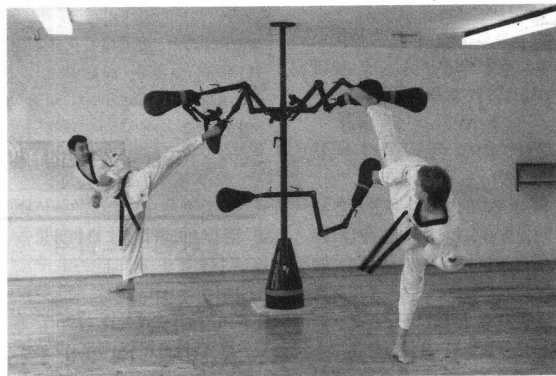
5.14~15: 제6회 강원도 태권왕대회(춘천)

6월: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속초)

10.10~11: 제12회 강원도교육감기대회(춘천)

## 발차기 보조기구 개발

서독 고의민 관장



서독 민헨에서 활동하고 있는 前대표팀 코치 고의민관장이 발차기와 주먹치르기 연습용 보조기구를 개발하고 3월 23일 한국체육대학에서 시연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체육관의 벽 또는 마루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이 기구를 개발한 고관장은 『현재 태권도 전용 보조기구가 없어 복싱에서 쓰는 미트를 사용하다 보니 모든 수련자가 동시에 훈련을 할 수 없고, 또 미트를 잡아주는 사람의 관절과 어깨부분에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킴은 물론,

스톱워치를 부착시켜 훈련자의 스피드를 높여주는 등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말한다.

현재 유럽, 미국, 캐나다와 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이 기구는, 국내에서는 부산의 진한상사와 계약을 맺고 4월 중 시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고의민관장은 그간의 지도 경험을 토대로 개발중인 파워측정기와 스피드 측정기도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태권도 전용 보조기구의 개발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한다.



# 태권도 소식

제17회 회장기경 제75회 전국체육대회 1차 선발대회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오전 9시부터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회장기대회경 제75회 전국체전 1차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대회의 참가대상은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각 8체급이며 여자부도 이와 동일하다.

〈강원 김남주 편집위원〉

## 충청북도협회

### 대의원총회 개최

충북협회는 1월 10일 충북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보고 및 37,903,500원의 결산이 통과되었고 94년도 사업 및 예산 39,524,000원이 확정되었다.

94년도 사업을 보면 ▲심사: 3, 6, 9, 12월 4회

▲대회

4월: 충북국교연맹대회(한별국교체)

5월: 제23회 충북소년체전/제27회 충북중고연맹대회

6월: 제33회 충북도민체전/제20회 충북중고연맹대회

7월: 전국체전에선(청주중체)

9월: 제23회 중정기대회(충북학생체)

11월: 제21회 교육감기(옥천)

## 충청남도협회

###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충청남도 협회는 지난 1월 25일 대천 세원회관 대회의실에서 9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종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우리 대표팀이 전국 각종대회에서 임원 및 선수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충남을 빛내주었고 특히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하여 충남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충남 체육회로부터 우수한 경기단체로 인정받아 태권도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전제하고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과학적인 기술개발로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 동계훈련 및 하계훈련을 “필승의 정신”으로 채무장하여 올해 3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며 20개 시·군 태권도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하였다.

충남협회의 올해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1억 2천 5백만원으로 승인되었고 세입금액 중 3천만원은 회장 및 부회장, 이사들이 찬조하기로 결의 하였다.

### 1차 승품단심사대회 개최

충남협회는 94년도 1차 승품단심사대회를 2월 20일 대천시민체육관에서 실시하고 659명의



특히 전북 태권도인들이 미국을 방문, 해외에 진출한 사범들의 활동상을 견학함으로써 전북 태권도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1차 승단심사대회 실시

94년도 1차 심사대회가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 미국 U.S 오픈 대회 참가

전북협회 유기대 회장을 비롯해 임원 21명이 미국태권도협회의 초청을 받고 2월 18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개최된 U.S 오픈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미국방문단은 미국태권도협회와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2월 20일 경기를 마치고 거행된 시상식에서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1품 324, 2품 89, 3품 8, 1단 157, 2단 42, 3단 21, 4단 15, 5단 3명이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11월 뉴욕협회에서 전북협회 임원 및 선수 15명정도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뉴욕과 전북협회간의 자매결연으로 전북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 출신 사범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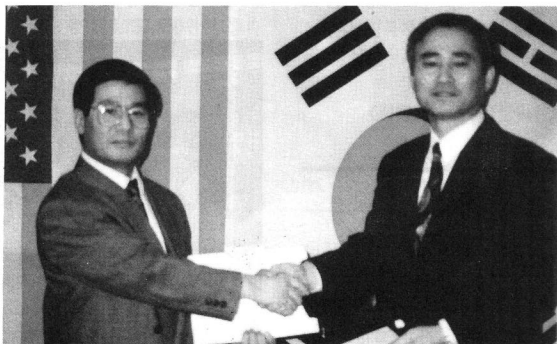
## 전라북도협회

전라북도협회-미국 뉴욕협회와 자매결연, 매년 상호 교환 경기 실시

전북협회는 미국 뉴욕을 방문, 2월 19일 전북협회와 미국 뉴욕 태권도협회간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난 2월 16일 미국 U.S오픈 태권도대회에 미국 태권도협회로부터 전북 임원 및 이사 20여명이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매결연을 맺은 뉴욕협회와 전북협회는 상호 교환 경기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진 전북협회 유기대 회장과 미국 뉴욕협회 김삼장 회장

# 태권도 소식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북 태권도의 명예와 위상을 확립하고 전북태권도의 활성화를 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미국과 전북협회는 매년 상호 교환 방문 및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 참여속에 3월 7일 이리 금마 특전사내에서 거행된 태권도 대회는 일반부선수가 부족한 전북 태권도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다.

## 심판강습회 실시

전북협회는 3월 8일부터 10일 까지 3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심판강습회를 실시했다.

전북 지역 심판 및 코치와 심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강습회에는 총 99명이 참가했다.

## 전주시 태권도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이원식씨 선임

전북협회 산하 전주시태권도협회가 1월 18일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전주시체육회의 정식 인준을 받아 전주시 종합경기장내 30여평의 사무실을 마련한 전주시태권도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이원식씨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7공수 특전여단 태권도대회 개최

전북 이리에 있는 7공수가 대대 대항 태권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북협회 임원 및 심판위원들

### (전주시협회 임원명단)

▲회 장 : 이원식  
(삼원개발 대표)

▲부 회 장 : 이영기 유희환 이병화 최동렬 강영수 송갑석



박영진

▲ 전무이사: 신재룡

▲ 이 사: 온남섭 오인선 김강원 오봉기 김상현 정갑동 문희주 배덕부 김성구 김운영 김승희 박명구 서학영 하영길

▲ 사무국장: 이운영

▲ 감 사: 이 훈 전광택

〈전북 정철 편집위원〉

## 전라남도협회

###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전남협회는 93년 12월 18일 전남체육회관내 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 및 118,436,391원의 결산을 통과시키고 94년도 사업 및 예산 121,550,000원을 확정했다.

### 1월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에서는 1월 심사를 전남태권도훈련장 및 목포유달경기장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하고 총 499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 1품 221, 2품 88, 3품 9, 1단 82, 2단 59, 3단 28, 4단 9, 5단 3명이다.

### 3월 중 행사

3.13: 전남체육관내 훈련장에서 상임심판원을 중심으로 심판보수교육 실시

3.20: 전남일원관장 및 사범을 대상으로 품새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상장과 금뺨자를 수여.

3.23~24: 제23회 전국소년체전 전남 2차평가대회

3.27: 순천팔마체육관, 목포유달경기장,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3월 심사대회 개최.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 경상북도협회

### 대의원 총회 개최

경북태권도협회 1월 8일 오전 10시부터 경북체육회관 2층 강당에서 전체대의원 23명 중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대의원 총회 및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1993년도 결산은 세입 112,849,610원, 세출 101,772,060원, 이월금 11,077,550원이 승인되었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18,737,550원이 통과되었다.

이어 거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 감사패

임봉진(대구체육관 관리장), 서진원(경북체육회 사무차장), 조경환(지산국교 교장), 윤상모(영신중 교장), 김일곤(봉양중 교장), 김경환(경북체육교 교장), 이체수(대구일보 기자), 모범지부상: 문경군, 점촌시

#### ▲ 공로패

이흥선(점촌시지부 부회장), 조희락(경주군지부 전무이사), 천우필(문경군지부 경기이사), 김만용(구미시지부 부회장), 김종규(포항시지부 감사), 정상기(청도군지부 회장), 배봉규(의성군지부 부회장), 박동환(영일군지부 회장), 박진화(영천시지부 화랑체육관장), 최강호(김천시지부 승남체육관장), 신칠만(청송군지부 부회장), 김기현(안동시·군지부 부회장), 김주홍(경기분과위원회 위원), 신기철(경기분과위원회 위원), 박위조(심판분과위원회 위원), 최훈달(심판분과위원회 위원), 박창국(심판분과위원회 위원), 이윤식(심사분과위원회)

#### ▲ 장한어머이상

임병호

#### ▲ 지도상

박세동(지산국교 감독), 김재규(영천교 감독)

#### ▲ 경기상

노구갑(경북체육중학교), 이진원(경산시청), 정연욱(중부대학교)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 경상남도협회

### 심사대회, 2000여명 응심

경남협회는 제11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심사에는 2000

여명의 수련생이 응심하여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뽐냈으며 많은 학부형들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였다.

---

## 제주도협회

---

### 3월 심사대회 실시

제주도 협회는 올해의 첫 사업으로 3월 12일 제주대학교 체육관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3월 정기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응심에는 300여명이 응심했다.

###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실시

제주도 협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국민생활관에서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코치 및 감독, 심판원 등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심판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경기규칙해설, 심판수신호실기 등이 이루어진다.

---

## 한국대학연맹

---

### 이사총회 개최

대학연맹은 93년 12월 30일 리버사이드호텔 2층 칸나홀에서 정기이사 총회를 열고 93년 사업보고 및 결산 53,444,300원을

통과시키고 94년도 사업 및 예산 111,187,000원을 확정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제21회 전국대학개인대회겸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 대표선수선발전(5.6~7, 수원) ▲제17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항개인대회 (8.26~27, 국기원)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11.2~6, 그리스 아테네)출전

### 신임 전무이사에 손천택교수 선임

대학연맹은 '94년도 이사총회에서 손천택 교수를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손천택 신임 전무이사는 대학연맹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국 대학대권도 발전의 중심기구로서 손색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손천택 전무이사 약력  
경북 출생(42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박사)  
인천대학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중

### 지병윤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대학연맹 지병윤 사무국장은 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로로 93년 12월 3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거행된 표창수여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 했다.

지병윤 사무국장은 지난 8년간 법무부에서 위탁한 30여명의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 했으며 지금도 지역에서 태권도 장학회 (회장: 이상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올바르게, 굳세게, 강하게”란 표어로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및 무도정신을 심어 주고 있다.

## 중고 연맹

### 이사 총회 개최

한국중고태권도연맹은 93년 12월 20일 하림각에서 이사총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 및 결산 87,318,854원을 통과시키고 94년도 사업 및 예산 106,753,000원을 확정했다.

94년도 사업 ▲ 제21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5.29~6.3, 잠실학생체육관) ▲ 제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대회(8.19~26, 잠실학생체육관)

## 국기원

###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

국기원은 기술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분과별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될 94년도 기술심의회 임원을 임명하였다.

기술심의회 의장에는 황춘성씨가 유임되었다.

11개분과위원회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자문위원: 박해만, 김순배, 이영섭
- 의장: 황춘성
- 부의장: 김용서, 전재규, 장기승, 강정구
- 지도위원: 박명수, 권경욱, 문창남, 김영삼
- 기획위원장: 심재익  
부위원장: 한용석, 김용수, 맹만호
- 심사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 임윤택, 박용화,
- 과학위원장: 고동준  
부위원장: 김장식, 허영길, 김창성, 김종수
- 국제위원장: 이덕태  
부위원장: 임응규, 김학근, 노수길
- 사채위원장: 임홍수  
부위원장: 박찬수, 김진위, 김광중
- 교육위원장: 이규현  
부위원장: 서인종, 이성용, 서경무
- 편집위원장: 구정도  
부위원장: 전만옥, 이고병, 한상국
- 연구위원장: 안해옥  
부위원장: 이상구, 김기일, 임보순
- 시범위원장: 이규형  
부위원장: 최재무, 최봉호, 구정희
- 상벌위원장: 김정대  
부위원장: 이동성, 최정선, 이학천
- 협력위원장: 강영복

부위원장: 김영철, 김명수, 김종길

## 세계태권도연맹

### 동남아 4개국 태권도 시범단 파견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93년 11월 26일~12월 11일까지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에 시범단(14명)을 파견, 시범활동을 통해 동남아 태권도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기하였다. 또한 94년도 아시안게임 참가독려와 향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쳤다.

### 서울 국제대회 개최

세계태권도연맹은 4월 22일과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미국, 스페인, 호주 4개국 초청, 서울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IOC 100주년을 기념하여 창설한 이번 국제대회에는 특히 태권도의 올림픽경기종목 채택을 위하여 IOC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태권**



# 태권도를 소재로한 게임 “왕중왕” 전자오락을 통해 우리의 태권도 문화가 세계로



**태**권도 전자 오락 프로그램인 왕중왕은 태극선사, 한배달, 김훈 등 우리나라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각국의 태권도 최강자들이 태권도 경기를 통해 태권도 왕중왕을 가리는 내용이다.

태권도를 소재로한 전자 오락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은 주식회사 빅콤.

1991년 게임 개발 전문회사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립한 빅콤(회장·김갑환)은 국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팀을 구성하여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전문회사인 SNK 사에서 1년동안 연수를 받도록했다. 개발실 김재훈 실장을 비롯한 개발팀은 92년 4월부터 국산게임 왕중왕을 개발하기 시작, 1년반 동안의 연구 끝에 1993년 10월에 왕중왕 개발을 완료하였다.

왕중왕은 최고의 태권왕이 되기 위해 전세계 태권고수들이 대결을 벌이는 대전형 액션게임으로 국내용과 해외 수출용이 있다. 수출용은 파이트

피버(FIGHT FEVER)라는 제목이 붙여졌고 영어 자막 등을 사용했으나 기합소리나 1회전, 2회전 등 게임 진행은 한국말로 한다.

이러한 전자게임 소프트웨어가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 우리의 태권도와 우리말 등 우리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세계로 퍼지는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동해의 일출과 함께 세계태권왕으로 가는 대장정의 날이 밝았다. 세계의 고수들을 다 물리친 그가 나와의 일전에서 승리한다면 진정한 승자가 되리라. 하지만 내게 오는 그가 나의 아들들이라면 과연 나는...』

왕중왕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시작된다. 왕중왕은 9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하여 격투를 벌이는 액션 게임.

왕중왕의 시나리오, 등장인물, 배경면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삼입되어 있는데 눈높인 설악산을 바라보고 심신을 수련하는 태권선사의 모습, 한국을 대표하는 한배달이 등장할 때에는 한국고수부지와 63빌딩이 배경으로 깔린다.

등장인물 9명중 3명이 한국인인데 태극선사는 태권의 달인. 유연함과 스피드의 조화에서 뿜어나는 기공 태권도의 현 최고 달인이다. 태극선사의 두 아들인 한국의 대표 한배달과 멕시코의 김훈은 서로가 부자지간인지, 형제간인지 모른다. 태극선사는 아이들이 어릴때



▲태권도 왕중왕전을 펼치게될 9명의 각국 대표들

“  
왕중왕은  
최고의 태권왕이  
되기 위해 전세계  
태권고수들이 대결을  
벌이는 대전형  
액션게임

입산수도해 태권도를 연마했고 한배달은 한국에서, 김훈은 멕시코로 건너가 각각 태권도 최고의 파이터가 된 것이다. 외국의 파이터들은 각국의 대표성을 떨만큼 이름과 복장, 배경이 어울어지고 있다. 중국 대표 「칭파오」는 쿵후의 명인으로 중국대륙의 고수를 물리치고 태권도에 도전, 왕중왕의 길을 떠난 인물이다. 칭파오가 대결을 벌일때는 웅장한 자금성이 보인다.

미국의 「매직 던커」. 그는 장신을 이용한 발차기와 태권도 기술의 융합에서 나오는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한다.

일본의 「미유키」는 유일한 여자 파이터인데 태권도와 가라테를 결합하여 자기 특유의 기술을 만든 기습의 달인.

독일의 「하이머」는 유럽권 수련대회 일인자로 늘 최고를 주장하며 왕중왕에 도전.





▲왕중왕을 개발한 빅콤사 개발실 직원들

미국의 「코만도」는 현 미육군소령으로 태권도 사범을 맡고 있는 인물. 힘을 바탕으로 한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마존강이 유유히 흐르는 배경에서 정글의 괴력을 발휘할 브라질의 「골리오」는 문명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는 환경보호론자이기도 하다.

게임은 누가 왕중왕이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왕중왕을 가리는데는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중간 중간에 보너스게임이 주어져 승판관 기와 격파실력을 가리기도 한다.

왕중왕은 우리의 고유무예인 태권도를 소재로 했다는 것과 함께 우리 자체의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왕중왕게임은 지난 2월22일부터 일본천엽사에서 열렸던 국제오락게임전시회(AOU)에 한국 최초로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다.

빅콤의 김재훈 개발실장은 「AOU는 아케이드 게임의 엑스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규모와 권위를 갖춘 세계적인 게임 전시회입니다. 전세계 전자오락소프트웨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복제왕국으로 보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막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게임 개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왕중왕」이 처음으로 출품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빅콤은 이 전시회를 통해 일본에 수출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멕시코 등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오락실용 프로그램이 보통 일본 수입품으로 편당 100만원정도인데 오는 5월 어린이날을 즈음해 시판에 들어갈 왕중왕은 이보다 훨씬싼 30만원대라고 한다.

왕중왕 개발의 책임자였던 김재훈 실장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태권도를 소재로했기 때문에 전세계에 수출도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오락게임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외국산이어서 외국문화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태권도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태권도 문화를 수출한다는 자부심도 갖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전한 오락게임 풍토를 조성하여 정신문화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싶은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라며 왕중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한다.

또한 「외국의 쏟아져 들어오는 문화를 그대로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창조해냄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태권**

## 여자 태권도부 명문을 꿈꾸는 한남대학교

폭넓은 학문영역에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지성의 산실로 성장한 한남대학교(총장 박종민 박사)에서 여자 태권도 선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남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북체육고와 인천체육고에서 우수한 여자 선수를 특기자 혜택으로 사회체육학과(학과장 조남진 박사)에 입학시켜 지방 여성 태권도 선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어 체육계의 관심이 크다.

이 대학의 사회체육학과는 지역 체육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산학협동의 수범을 보이며 발전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94년 2월 제 1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사회체육학과는 졸업생 전원이 유관기관에 취업이 확정되어 인기학과이자 한남대학교의 육성학과로서 인정받고 있다.

사회체육학과 교과과정에 태권도 이론 및 실기를 4학기 이수토록 정하여 과학생 전원(남, 여)이 태권도 2단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회 정규적으로 태권도 관련 학술 세미나를 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 와 극기심을 배양하고자 '무예 태권도' 차원에서 산행훈련을 정례화 하고 있으며 각종대회의 참여와 지원으로 대회실무도 직접 익히고 있어 사회체육 지도자의 정예화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정진하고 있다.

한편 한남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개발 대학인 최고지도자 과정(1년)에 사회(생활)체육 전공 대학원 과정을 설치(정원 20명)하여 지역에서 유능한 인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선의 사회체육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남대학교 사회체육 최고지도자 과정의 신설은 타대학의 프로그램에 한층 앞서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은 주 3일 야간에 실시하며 1일은 실기과목

으로 골프를 1년간 지도하고 있으며, 이론과정은 최고지도자론, 영어회화, 리더쉽론, 체육시설경영론, 마케팅론, 처세론, 체육사, 사회(생활)체육론, 건강학, 운동처방론, 체육행정학 등 최고 지도자 과정으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동계 스키강습과 불링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자 여름방학중 6박 7일간 일본국 체육시설 및 사회체육현장 견학, 겨울방학에는 호주 및 유럽의 생활체육 현장 견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도 높인다. 이번 1기로 합격한 인사들 중에는 제11회 아시아 단수권대회서 한국대표선수단 선수를 맡은 박창택 대전시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박세열 시의회 지방자치특위 위원장, 김성준 위원, 체육계처, 실장 등을 비롯하여 지방 체육의 중진들이 대거 입학, 향후 대전, 충남체육의 발전을 보는 듯 하였다. **태권조**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 사할린에 태권도 꽃 피우다

중대구 — 사할린태권도협회 자매결연

가깝고도 먼 이웃, 50여년 세월을 망각속에 지나왔던 사할린 동포들, 지금은 그런대로 서로가 왕래라도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아직은 일부의 일이다.

4만여 한인 강제 징용자의 한이 반세기 동안이나 서려 있던 곳.

러시아의 사할린.

대구태권도협회 산하 중대구 지부(지부장 박성진)와 사할린태권도협회간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사할린 현지에서 거행된 조인식에는 박성진씨를 단장으로 안재복씨(수창국교 감독), 서진석씨(무궁화도장 관장), 이문우씨(맹호도장 관장), 장재덕씨(배영여상 감독) 등 5명의 단원이 다녀왔다.

한국을 떠난지 3시간 만에 가슴 설레며 도착한 사할린은 무척이나 넓고 싱그러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비행기 창밖으로는 수십명씩 사람들이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군용트럭과 입국장의 여군들을 보면서 여기가 사할린이란 것을 실감했다.

입국수속을 마친 단원들과 공



자매결연서를 교환하는 중대구협회의 박성진회장과 사할린협회의 민태출회장

향을 나서자 단원들을 초청한 사할린협회 민태출회장을 비롯 임상명부회장, 통역을 맡은 최유라씨, 사할린협회를 후원하고 있는 사할린연합 감리교회 최광석목사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환영을 나와주었다.

중대구협회 단원들과 사할린협회 관계자들은 매년 양국 협회간의 상호방문을 결의하고 체육기간 동안 태권도 기술보급, 한인회 및 노인회 방문, 자매결연식, 주요인사 면담과 주체육

회, 신문사, 방송국 방문, 승품·단심사, KAL기 격추 위령탑 건립예정지 방문 등을 협의했다.

일정을 협의 할때 러시아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인 리·와체슬라브씨로부터 러시아 태권도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러수교 전까지 러시아에서는 북한이 주도하던 ITF(국제태권도연맹)에 소속된 태권도를 수련 했으나 88서울올림픽을 T·V로 보고 한국 태권도에 매



승단심사후 사할린협회 지도자들과 함께한 중대구협회 방문단

력을 느껴 관심을 갖고 비디오와 책자를 통해 태권도를 익혀오다 지난 91년 WTF(세계태권도연맹)본부인 국기원을 방문, 러시아협회 설립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그는 「현재 러시아 태권도계는 최고단자가 4단에 그치지만 75개 지역협회에 수련생이 자그만치 250여만명(ITF수련생 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중중국 태권도 방문단을 맞으러 모스크바에서 8시간 비행 끝에 사할린에 왔다는 얘기에 이들의 태권도에 관한 관심도를 읽을 수 있었다.

중대구협회 단원들은 사할린협회 관계자들에게 박단장의 태권도 이론을 비롯, 안재복감독의 발차기와 겨루기, 이문우, 서진석관장의 품새·장대력감독의 태권도 예절교육을 엄격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실시되었다.

한편 민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지도자, 50여명의 수련생들의 교육자세는 피교육생 모습 그대로였다.

교육을 끝내고 우리 일행은 한인회와 노인회를 방문,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대구협회와 사할린태권도협회간의 자매결연은 스파르타크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다. 태권도 관계자들은 물론 고려인협회 김홍지회장, 州노인회 박해동회장을 비롯 州행정부 한인 담당관 김종희씨, 州이산가족회 서운준 회장, 중·소이산가족회 이두훈 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새고려신문, TV, 라디오방송 등의 취재경쟁 속에 엄숙한 분위기로 거행된 이날 행사는 중대구-사할린협회를 대표한 박성진-민태출회장간의 조인식이 있는 후 최규열자문위원의 친필 「국기태권도」 휘호 전달이 있었다.

이 날 김홍지 州고려인협회장

은 격려사에서 「이제 사할린에 한국태권도의 씨가 뿌려졌으니 싹이 트고 거친 풍파를 이겨 나갈 수 있게 가지치기, 물주기에 정성을 다해 꽃을 피우게 하자」며 격려하고 김종희 한인담당관은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조인식이 끝난 후 단원들은 신문사, 방송국에 초대되어 수차례 인터뷰를 갖고 주체육회를 방문, 태권도 교류와 양국간의 친선도모에 공이 컸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단원들의 활약상이 자매결연 식후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시가를 거닐때면 알아보고 인사를 보내거나 스파르타크 체육관을 찾아와 관심을 갖고 교육현장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늘어 나기도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위임을 받아 박성진단장의 주관으로 실시한 승품·단심사에 64명의 응심자가 참가해 높은 기술을 보임으로써 우리일행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절도있는 동작, 정확한 품새 자세는 이들이 얼마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짐작할만 했다.

귀국에 앞서 우리 일행은 지난 83년 승격 269명을 태우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다 소련군 용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공역주된 넬웰스크 구역에 위치한 위령탑 건립지를 찾아 예를 올리고 94년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귀국했다. **태권**

<양경덕/ 대구협회 이사>

## 경희체육관, 현대체육관 태권도 부부가 각각 운영



▲ 김영덕사범의 대학원 졸업식날, 부인 임난희 사범과 딸이 축하해주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경희체육관과 현대체육관은 태권도 사범 부부가 각각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화제.

경희체육관의 김영덕사범과 현대체육관의 임난희 사범은 원래 스승과 제자로 경희체육관에서 만나 92년 11월 29일날 결혼식을 올린 태권도 부부.

두사람의 만남은 85년도에 김영덕 사범이 운영하는 경희체육관에 임난희씨가 수련생으로 등

록하면서부터였다. 이후 5년간 김사범의 지도로 임난희씨는 여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충남 라이트급의 일인자 역할을 해왔다.

경희체육관을 운영하는 김영덕 사범은 경희대와 호서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5단. 사범자격증,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다.

현대체육관의 임난희 사범은

4단으로 사범자격증,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다. 남편 김영덕 사범이 취득한 경기지도자 자격증은 없지만 대신 에어로빅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 태권도 사범 부부에겐 백일이된 공주 현경이 있다. **태권**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 제1회 경남 태권도인 단합체육대회 개최

“영차, 영차”, “얼싸, 얼싸” 그리고 “와아”하는 함성.

이 우렁찬 소리는 실로 경남 태권도협회가 결성된지 30여년 만에 개최된 제1회 경남 태권도인 단합 대회의 줄다리기 시합의 열띤 순간이다.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 보면서 응원에 열중하고 있는 각 팀의 임원과 가족들은 모두 흐뭇한 기분이었다. 물론 승패는 뒷전이였다.

이 대회가 열린날은 뜻깊은 3·1절.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서서 독립 만세를 외친지 75주년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 의미깊은 3월 1일에 제1회 경남 태권도인 단합 체육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장소는 우리 경남협회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 마산 종합 운동장 보조 경기장. 참여 인원은 경남 각 시와 군을 대표한 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 등 약 500여명이었다.

경남협회 이순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협회가 생긴 이후 30년 동안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은 일찍이 없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남 태권도인의 화기에애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격려사를 한 이도재 고문은 경남 태권도 가족의 단결 뿐 아니라 각 지역 사회에서 명랑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블랙타이거” 태권도 도복 제조업체 대표인 김선규씨는 이날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유니폼을 기증하면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도록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의 시·군을 4지역으로 나누어 팀을 편성했다. 경기 종목도 역시 4종목으로 결정하였는데 축구, 족구, 줄다리기, 그리고 400M 릴레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날 오후에 열린 줄다리기 시합에서는 각 팀당 3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힘을 겨루었는데, 첫 판부터 줄이 끊어지는 등의 엄청난 힘을 과시하였다. 급기야 선수의 숫자를 반으로 줄여 힘을 쏟은 끝에 백팀이 영광의 우승을 안았다.

이 대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는 바로 400M 계주였다. 한 팀 당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씩으로 200M의 트랙을 각 주자가 반 바퀴씩 달리는 방법으로 예선없이 곧바로 네 팀이 실력을 겨루었다. 앞치락, 뒷치락,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하는 흥미진진한 릴레이 경주였다.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홍팀이 1등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본 경남 협회가 주최하였으며, 본 협회에 속해 있는 사범 복지 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 사범 복지 위원회는 축석에서 뜨끈뜨끈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으며 모든 참가 선수 및 가족들에게 기념 타월을 증정하는 등의 세심한 행사 운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이순달 경남 협회장은 폐회사에서, 『내년 제2회 대회는 좀더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한 경남 태권도인의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태권도 가족들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태권**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 태권가족



이향원







## 그날의 실수

글 · 고원정  
그림 · 이향원



맹달씨는 슬쩍 눈치를 보다 부장에게로 일른 다가 갔다. 토요일인데도 오후 근무를 지시받은 직원들이 투덜거리면서 점심을 먹으러 간 직후였다.

“저, 부장님.  
“뭐니까?”

고참 대리인 맹달씨가 늘 요령을 피운다고 도끼눈을 뜨곤 하는 부장인지라 벌써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맹달씨는 용기를 냈다.

“저, 오늘만은 좀 일찍 들어 가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실은 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요.”

“아니, 아버님은 집에서 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부장은 괜히 거짓말임을 안다는 투로 핀잔을 주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맹달씨는 비슷한 거짓말을 몇번씩 써먹은 전례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 ... 오늘 병원엘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제 아버님이 원래 혈압이 높으신 편이라서 오신 김에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겠다고 하셔서요. 아무래도 제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부장의 아버지가 2년전에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계산에 넣은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혈압이라는 말에 부장은 당장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님이 혈압이 높으세요?”

“예, 좀 그러신 편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려구요?”

“저, 평화대학병원에 가려고 합니다만.”

“아니예요, 비둘기대학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거기가 고혈압 전문입니다.”

이쯤 되면 일이 끝난 것이었다. 맹달씨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군데 더 거짓말을 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부장의 성격상 집에 전화를 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으리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내에게 토요일인데도 일찍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둘러대야 했던 것이다.

“아니, 왜 토요일인데도 늦는다는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 가서 피자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는 아내의 목소리는 샅쭉하기만 했다.

“이러지 말라구. 난들 오늘 하루쯤은 아빠노릇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다 사장이 생겨서 그렇단 말이야.”

“어디 들어봅시다, 그 사정.”

“내 친구 동수 알지? 그자식 누이동생이 있는데, 내 대학후배하고 선을 보기로 했대구. 내가 소개한 일인데 내가 만나갈 수 있어? 당신이 이해를 좀 하고, 아이들도 달래놓으라구. 내가 능한한 빨리 들어갈 테니까.”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질문을 던져왔다.

“후배, 누구요?”



맹달씨는 미스리와 택시를 타고 잠실야구장으로 내달렸다. 회사빌딩 구내커피숍의 종업원인 미스 리를 토요일 오후의 데이트에 끌어내느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맹달씨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콧방귀만을 꾸던 미스리가 야구장 입장권 두 장을 내보이자 반응이 백팔십도로 달라졌던 것이다.



“인철이라고 있어. 3년 후배야.”

아무리 아내가 마당발이라지만, 결혼하고 딱 한 번 본적이 있는 동수에게 누이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인철이라는 대학후배가 어떤 녀석인지 알게 되라는 말인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저녁 때까지라도 들어오세요.”

“글쎄, 아무래도 개들 만나게 해주고는 동수하고 술이라도 한 잔 해야할 테니까 ... 하영튼 최 대한 일찍 들어가도록 노력할께.”

맹달씨는 휘파람을 불고 싶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다. 누가 죽었느니, 누구 아들 들어라느

니 하는 것이야 너무도 많이들 써먹어서 효력이 없었다. 모를지기 아내를 속이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 맹달씨는 신이 나서 미스 리와의 약속장소로 달려갔다.

“5분이나 늦으시면 어떻게요?”

미스 리는 예쁘게 쌍꺼풀진 눈을 밑지 않게 흘기면서 맹달씨를 맞아주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다들 여섯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나만 빠져나오느라고 아주 애먹었다구. 자, 가지.”

맹달씨는 미스 리와 택시를 타고 잠실야구장으로 내달렸다. 회사빌딩 구내커피숍의 종업원인 미스 리를 토요일 오후의 데이트에 끌어내느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맹달씨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콧방귀만을 꾸던 미스리가 야구장 입장권 두 장을 내보이자 반응이 백팔십도로 달라졌던 것이다.

“어머, 나 프로야구 구경 진짜로 운동장에서 해본적 없는데?”

그래서 성사된 데이트였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다들 하는 말따마나 남자는 가끔 이렇게 팽팽하게 쥔은 아가씨들과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젊음을 잃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뭐 수상한 짓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야구구경 좀 같이 하자는데.

그날 야구장에서의 맹달씨는 거의 황홀할 지경이었다. 바로 옆에는 미모의 미스 리가 붙어



앉아서 오징어를 찢어 입에 넣어주는 등의 서비스를 아끼지 않지, 눈앞에서는 늘씬한 치어걸들이 뽐양고 늘씬한 다리를 하늘높이 쳐들며 춤을 춰대지, 시합은 맹달씨가 좋아하는 펜킨 팀이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뒀지, 게다가 맹달씨는 9회초에 스탠드로 날아온 파울볼을 손으로 멋지게 잡아내기까지 했다. 그 공을 선물로 건네주자 미스 리는 좋아서 수제 펄쩍 펄쩍 뛰고 있었다. 정말이지 쌓인 스트레스가 다 씻겨나가는 유포한

토요일 오후였다.

미스 리와 소주 한잔씩을 나누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니 아홉시가 넘어 있었다.

“일 잘됐어요?”

아내의 물음에 맹달씨는 이맛살을 있는대로 찡그려보였다.

“글쎄, 모르겠어. 동수 동생 그애, 보기와는 달리 눈이 높다군.”

투덜거리면서 맹달씨는 세수를 하고 TV를 보는 아이들과 합류했다. 마침 스포츠 뉴스를 하고 있었다. 지금 막 보고온 게

임이 소개되자 맹달씨는 죄책감과 야릇한 쾌감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다. 4번타자가 친 공이 파울이 되어 스탠드로 날아가자 그 공을 멋지게 잡는 한 사내의 모습이 비쳐지고 있었다. 바로 맹달씨 자신이었다. 아, 하는 순간 TV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아 보여주었다. 환희에 찬 그 얼굴, 그 옆에 바짝 붙어있는 미스 리의 얼굴... 딸아이가 소리질렀다.

“아빠다!”

그 후의 일은 소개하지 말기로 하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부장으로 부터도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이다. **대한**



고원정

1956년 제주 하귀 출생  
제주일고, 경희대 국문과 졸업  
85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  
창작집 '거인의 집' '칼 한 자루의 사상'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온다'  
대하소설 '빙벽' '대한제국일본침략사'  
장편소설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  
'최후의 계엄령' '대권' '숨어있는 사람들' '바다로 가는 먼 길' 등

## 21C 태권도 비전을 펴자

이 경 명/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전통문화로서 태권도는 호신·호국의 무예에서 오늘날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여 지구촌 140여개국에서 이천만 명이 수련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 한국의 태권도 전담인 국기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73년 서울에서 19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설되었다.

WTF 태권도는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국제화정책을 펴서 20여년 만에 140여개국에서 인종·종교·정치·문화 등의 두터운 장벽을 넘어 보급되고 있고 태권도를 통해 IOC가 추구하는 인류화합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권도스포츠는 이미 두차례 '88서울·'92바르셀로나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참가해 기술의 우수성과 국력을 세계에 떨쳤다.

태권도종목은 월드컵, 판암게임, FISU, CISM 및 기타 10여개 지역 국제게임에서 경기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조망할 수 있다.

무예로서 출발한 유도는 일본의 상징적 스포츠로 '64동경올림픽에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후 국제스포츠로 정착돼 있다. 그 다음으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티켓을 획득키 위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권도 올림픽운동은 전세계 태권도인의 열망이며, 그 티켓의 실현은 태권도인의 비전과 질풍

운 태권도 문화창조 및 스포츠의교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태권도인은 태권도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자부하며 동양무도의 자생지인 아시아권에서 유사한 타 무도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은 아닐까. 가라데, 우슈 등을 비롯한 기타 종목에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인해 실익보다는 손실을 보게된 쓰라린 교훈을 다시한번 성찰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86 서울 아시안게임을 한국에서 개최할 때 우리는 태권도 종목만을 채택하였다. 그 후 '90 북경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중국은 우슈를 채택했고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일본은 가라데와 우슈종목을 채택하고 태권도를 제외시켰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에 공식보도되자 국내 삼백만 태권도인의 실망과 질타는 대단하였고, 뒤늦게서야 범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외교력을 동원하여 가까스로 태권도종목을 추가 채택되게하는 등 범칙을 떨었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처음 듣게되는 세팍타크로, 카바디 종목이 전략적 동반자로 채택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국제무대에서 선두주자로 앞서 달리기만 하던 태권도는 무예의 본바탕인 아시아권에서 제동이 걸리고 타종목과 함께 아시안게임에 동반채

택되는 등 수모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21C 미래 태권도비전을 펴는 태권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나아가 태권도가 실제 안고 있는 현안을 진단하면서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주국 태권도인은 올바른 태권도 역사를 체계적으로 규명, 정립해 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태권도역사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역사규명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태권도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국제화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일관성있는 역사적인 고증을 제시하며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태권도역사에서 고대에는 수백, 택견 등이라 불리었다는 막연한 규정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택견과 수백의 보급이 활발히 전개되고 나아가 해외로까지 진출, 보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한택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가맹, 택견 경기종목의 공인화 작업에 대해 과연 태권도인은 무관심을 표해도 좋을지 우려된다. 그리고 세팍타크로, 카바디, 가라데, 우수종목이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경기종목으로 채택돼 있는데 앞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공식종목으로 정착된다고 가정할 때 이들 종목의 국내 유입은 당연시 될 것이다.(현재 세팍타크로, 우수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돼 있음)

우수협회는 이미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가라데협회의 움직임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택견을 포함 우수, 가라데에서 태권도 역사를 거론하며 비판을 가해올 때 태권도계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정립해 놓을 수는 없는 걸까.

둘째, 태권도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 개설이 시급하다.

태권도경기회는 WTF장설을 구심점으로 전세계 회원국 조직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역할을 높이



올 해는 태권도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는 9월 파리 IOC 총회에서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종목채택이 결정되기에 태권도의 사실이 걸려 있기도 하다.

때마침 태권도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올림픽 경기종목채택 추진위의 활동이 기대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을 향한 열망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자.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는 경기스포츠이전에 전통문화로서 무예이다.

태권도 무도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자칫하면 유도와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태권도 본질은 무도성에 있다. 기(技)와 기(氣)의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며 수련하는 학습단원과 학습의 질을 가능하는 중요한 갖대인 품단제도가 태권도의 매력적인 동인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으로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련동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체육관의 태권도수련생 70% 이상이 국민 학교생인 것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용인대와 경희대에 정식으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돼 있으나 얼마큼 태권도 과학화가 수립돼 있는지 적잖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태권도의 학문적 정립은 태권도학개론, 지도론, 트레이닝 방법론, 경기론, 미학, 역학 및 철학 등

분야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점에 가보면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문헌을 찾아보기 힘들다.

태권도의 경기스포츠로서 과학화는 경기규칙의 보완과 과학적 장비를 지적할 수 있다. 경기규칙의 보완으로 판정의 공정성과 관중에게 박진감 넘치는 흥미부여, 선수에게는 다양한 기량발휘와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정책수립은 종주국 태권도인의 군은 각오와 정신개혁의 바탕에서 총체적 실천의 지로 발전을 떠나가야 한다.

셋째로, 태권도 철학에 대한 규명이 명확히 돼 있지 않다.

태권도 무예의 본질은 태권도철학 구성원리의 기초개념이 되고 있다. 태권도철학 규명은 태권도 무예의 본질에 접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예를 수련해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련·연마하는 것이 기술을 숙달하고 신체의 균형과 정신내면을 보다 차원높게 깨우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에 명확한 답변이 없다.

태권도는 신체의 사지를 역동적, 합목적적 활동을 하여 가공할 무형의 위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학운동으로 묵상, 호흡조율을 통해 고도의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철학적 역학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을 통합시켜 주는 수단으로써 삶의 양식을 조절해 준다. 이렇듯 태권도가 함양하고 있는 철학적 무예성을 높이 평가하고 접근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차원에서 경기화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마땅하다.

생활체육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수련학습단원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경기는 보다 강하게, 보다 높게, 보다 빠르게에서 아름답게 라는 스포츠미학의 차원으로 승화, 예술성의 접목이 이뤄져 무예스포츠의 진수를 꽃피울 수는 없는 걸까.

태권도의 포스트모더니즘이 근자에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지난해 유럽태권도 연맹이 개최한 제1회 품새선수권대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발전 제2회 태권도 한마당 경연 등은 겨루기 위주의 태권도호름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는 수련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즐거움을 수련생들에게 부여해 주고 예술에 대한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종의 예술형태(무예)인 것이다.

비록 일천한 역사에서나마 태권도가 오늘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태권도인이 세계화로 눈을 돌려 적극적 대외지향정책을 추진하여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태권도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한인 태권도인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위선양과 민간외교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종주국 태권도인은 긴 동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종주국 태권도인은 태권도스포츠를 인류대계전인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진입하고 타 무도에 뒤지지 않도록 학문적 이론정립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올 해는 태권도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는 9월 파리 IOC 총회에서 2천년 시드니 올림픽 종목채택이 결정되기에 태권도의 사활이 걸려 있기도 하다.

때마침 태권도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올림픽 경기종목채택 추진위의 활동이 기대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을 향한 열망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인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스포츠 국제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위한 재조명과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보다 성숙된 위치에서 기술제공 및 협력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도인의 각오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함을 통감하며, 종주국 태권도인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제화, 경쟁화시대에 열린 언로, 화합, 발전을 위한 삼위일체적 정신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태권**

# 태권도 수련생의 부상에 관한 분석

안 창 식/ 호서대학교 강사

## I. 서 론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로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고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다.

태권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과학적인 경기 규칙과 보호 용구를 개발하여 각광받는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태권도 기술에는 품새, 겨루기, 경기 및 격파가 있으며 경기는 태권도의 공격기술 중에서 주먹치르기과 발차기만을 사용하고 몸의 전면만을 공격하되 얼굴 공격은 발만 사용하며 복부아래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머리보호대, 몸통호구, 살보대, 팔, 다리 보호대 등으로 경기중 인체상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보다 국가의 명예를 건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이며 스포츠의 국제무대는 국력과의 각축장으로 변해가는 시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향상과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태권도는 다른 종목의 스포츠와는 달리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하는 몸과 몸의 대결이므로 경기나 연습중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 기술에 의한 상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판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용인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태권도학과 학생 161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 2. 연구절차

- 1) 1993. 3. 2~10. 20  
연구계획 수립과 문헌 연구
- 2) 1993. 10. 22~11. 5  
질문지 작성
- 3) 1993. 11. 10~11. 20  
질문지 배부 및 회수
- 4) 1993. 11. 22~11. 30  
자료처리 및 결과 해석
- 5) 1993. 12. 2~12. 30  
논문 작성

## III. 연구결과

### 1. 연령분포

연령분포는 19~20세 사이가 조사대상 161명 중 107명으로 가장 많고, 21~22세가 22명으로 많은 편이다.

## 2. 운동경력

운동경력은 8~10년이 107명(66.2%)으로 가장 많고 4~7년이 31명(19.2%)으로 많은 편이다.

## 3. 부위별 부상 발생수

부위별 부상 발생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1명 조사에 15개 부위 중 286건의 부상자가 발생 되었다. 가장 많이 부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족부 69건(24.1%), 슬부 60건(21.0%), 하퇴부 31건(10.8%), 주부 30건(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곳 부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4. 기술별 부상 발생수

기술별 부상 발생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가장 많이 부상이 발생된 기술은 앞차기 48건(16.8%)이고 다음이 뒤돌려차기 39건(13.6%), 막기 39건(13.6%)으로 같은 비율이다.

## 5. 부상 발생 원인

부상 발생의 원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습부족으로 77건(26.9%), 승부의욕 73건(25.6%), 지나친 긴장 59건(20.6%), 준비운동 부족 28건(9.8%) 순으로 나타났다.

## 6. 부상 당시의 상황

부상 당시 상황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습시 184건(64.3%), 시합때 102건(35.7%)로 시합때 보다 연습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표 1> 부위별 부상 발생수

부상명 부위명	염좌	좌상	골절	탈구	관절루 마치스	디스크	근육통	근염	테니스 엘 보	찰과상	뇌진탕	계	%
두 부		2									1	3	1.0
흉 부		2					2					4	1.4
배 부					2	3	2					7	2.4
견 부	2		3	3				2	2			12	4.2
상완부										2		2	0.7
주 부	4	11		4		4	3	2	2			30	10.5
전완부		3										3	1.1
수관절부	4	4	2	2				2	2			16	5.6
수 부	5		2	9						2		18	6.3
고 부					2	2						4	1.4
대퇴부							2	4				6	2.2
슬 부	11	2		4	15	14	6	8				60	21.0
하퇴부		12	2			3	6	7		1		31	10.8
족관절부	10	2		3		2		4				21	7.3
족 부	26	15		8			11	7		2		69	24.1
계	62	53	9	33	19	28	32	36	6	7	1	286	
%	21.7	18.3	3.2	11.5	6.6	9.8	11.3	12.6	2.2	2.4	0.3		100.0



〈표 2〉 기술별 부상 발생수

기술명 부위별	앞 차기	옆 차기	뒤 차기	앞뺨어 올리기	뒤돌려 차기	앞돌려 차기	주먹 지르기	빗 차기	찍어 차기	막기	후려 차기	가위 차기	들어 밀기	계	%
두 부	1				1				1					3	1.0
흉 부	2						2							4	1.4
배 부	2				3	2								7	2.4
견 부					2				8	2				12	4.2
상완 부										2				2	0.7
주 부	4	3	3				4			16				30	10.5
전완 부							2			1				3	1.1
수관절부						5	6			5				16	5.6
수 부	3						8			7				18	6.3
고 부					1	3								4	1.4
대퇴 부				2					1	2			1	6	2.2
슬 부	10	13	5		8	5		3		4	5	2	5	60	21.0
하퇴 부	10	3		1	7	2		4	2		2			31	10.8
족관절부	4		3	2	2	5			2			1	2	21	7.3
족 부	12	10	8	4	15	11			5		3	1		69	24.1
계	48	29	19	9	39	33	22	7	19	39	10	4	8	286	
%	16.8	10.1	6.6	3.2	13.6	11.6	7.8	2.4	6.6	13.6	3.5	1.4	2.8		100.0

〈표 3〉 부상 발생 원인

원 인	인 원	%
연습 부족	77	26.9
승부의욕	73	25.6
지나친 긴장	59	20.6
준비운동부족	28	9.8
주위 산만	17	5.9
무리한 연습	9	3.2
협소한 장소	8	2.8
반칙 행위	8	2.8
피로	3	1.0
어두운 장소	2	0.7
자기능력 과신	2	0.7
계	286	100.0

〈표 4〉 부상 당시의 상황

	부상수	%
연습	184	64.3
시합	102	35.7
계	286	100.0

#### 7. 부상 당시의 진단 여부

부상당시의 진단 여부를 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의 치료가 181건(6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의사가 70건(24.5%)으로 나타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 8. 부상 치료 기간

부상의 완전 치료기간은 〈표 6〉에서 1주 74건

〈표 5〉 부상 당시의 진단 여부

		부상수	%
의사	70	24.5	
코치	35	12.2	
본인	181	63.3	
계	286	100.0	

(25.9%), 2주 41건(14.30%), 3주 36건(12.6%), 4주 30건(10.5%), 5주 26건(9.1%)으로 나타나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치료된 사고가 많은 것은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긴 것은 13주까지 치료가 된 부상도 있다.

〈표 6〉 부상 치료 기간

주 간	발생수	%
1	74	25.9
2	41	14.3
3	36	12.6
4	30	10.5
5	26	9.1
6	19	6.6
7	20	7.0
8	17	5.9
9	8	2.8
10	4	1.4
11	5	1.7
12	4	1.4
13	2	0.7
계	286	100.0

## IV. 결 론

태권도 수련생의 부상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은 161명이 15개 부위 총 286건에 부상을 입었다.

2. 부위별 부상건수는 족부 69건(24.1%), 슬부 60건(21.0%), 하퇴부 31건(10.8%), 주부 30건(10.5%) 순이다.

3. 기술별 부상 발생수는 앞차기 48건(16.8%)이고 다음이 뒤돌려 차기 39건(13.6%), 막기 39건(13.6%)으로 같은 비율이다.

4. 부상 발생의 원인은 연습부족으로 77건(26.9%), 승부의욕 73건(25.6%), 지나친 긴장 59건(20.6%), 준비운동 부족 28건(9.8%) 순이다.

5. 부상당시의 진단여부는 본인의 치료가 181건(63.3%)으로 가장 많고, 의사가 70건(24.5%)으로 부상이 경미하다. **태권**

## 참고문헌

1. 김사달, 스포츠의학, 서울, 수문사, 1973
2. 강신일, 체조선수 부상에 관한 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집, 1976
3.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70년사, 서울 Korea Herald, 1990
4. 문교부; 체육자료 총서, 제4권,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부, 1973
5. 문명상, 이인기, 진교건, 이장정, 무술 태권도에 의한 손상,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제19권 제4호, 1984
6.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태권도 경기 본부; 태권도, 서울, 1988
7. 성상철, 김원중, 이명철, 조장원, 태권도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제24회, 제6호, 1989
8. 하권익, 배구와 스포츠 외상, 대한스포츠 의학회지, Vol4, NO2, 1986.7
9. 하권익의 3인, 운동선수들의 요통에 관한 분석, Vol3, NO2, 1985.7
10. 하권익의 2인, 체조선수의 외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Vol2, NO1, 1984.1

## 어린이들이 민간 외교관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박 성 열 / 동아일보 소년동아부 기자

서울 신도림국교(교장 조선구) 태권도 시범단(단장 김영국·서울시 협회 이사)이 지난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태권도 불모지인 중국의 심천·주해를 비롯, 마카오 홍콩 등지를 돌며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여,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나라 어린이 시범단이 중국에서 태권도 시범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도림국교 3~6학년까지 21명으로 짜여진 시범단(지도 최재무, 서울시 시범 분과 위원장·구로구 의회 의원)은 이번 3개국 순회 시범을 통해 국기 태권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한국 어린이들의 씩씩한 기상을 떨쳤다. 서울시 태권도 협회(회장 엄운규)의 94년도 사업으로 파견된 이 시범단에, 국교 연맹에서 15년여 동안 홍보이사로 활약해 오다가 현재 국교 연맹 지도 위원인 동아일보 소년동아부 박성열기자가 수행, 고사리 손들이 민간 외교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활약상을 보고 돌아왔다. 그의 수행기를 실는다. <편집자 주>

### 이동섭사범의 초청으로 마카오에서 4번째 시범

중국의 새 관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마카오에서도 우리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인기도는 대단히 높았다.

서울 신도림국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지난 1월 17일 오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관할 아래에 있는 중국 영토.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의 남단, 주강 하구의 남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5평방km, 인구 70만

명의 97%가 중국인이고, 3%는 포르투갈인. 마카오는 크게 반도시와 타이파섬, 콜로안섬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마카오는 오는 99년 12월 20일을 기해 중국으로 반환된다.

이번에 신도림 시범단을 마카오에 초청한 인물은 현재 마카오 치안 경찰청 태권도 총교관(공무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사범 이동섭 씨(40세, 공인 7단).

그는 지난 13년 전인 81년 이곳에 혼자 와 마카오 경찰 학교와 특경대 등에서 태권도를 무

료로 지도하는 등 국기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이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마카오 경찰 공무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섭 사범의 손에 거쳐 간 경찰 제자만 줄잡아 6천여 명이고 현재도 600여 명이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사범이 이곳에 태권도를 심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겠지만 지난 85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나 이곳을 찾아 시범을 보여준 신도림국교 어린이들의 역할도 컸다.



▲마카오 경찰학교에서 열린 시범 모습. 경찰학교 학생들은 어린이들이 고난도 격파 시범을 보일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곳에서의 시범은 방문 이틀째인 지난 1월 18일 오후 콜로안섬에 있는 마카오 경찰 학교 연병장에서 학생 300여 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이 날 시범 행사장에는 포르투갈인 조세 로린노 경찰 학교장, 아몬도 수사무도 주임 등 학교 간부와 학생 300여 명, 그리고 마카오 체육계 인사인 추안디 축구 협회장,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 마카오 담당 황해철 영사, 김영철 시범단 단장, 조선

구 신도림국교 교장 등이 참석, 고사리 어린이들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마카오 태권도 협회 라한친 회장(60살, 금산 건축 회사 사장)은 "마카오에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어린이 시범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특히 시범단 어린이들의 절도 있는 행동과 예절 몸가짐은 마카오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며 시범단 활동을 높이

섰다.

한편 시범단 일행은 2박 3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틈틈이 명승지도 찾아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시범단 일행이 견학한 곳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의 하나인 '세인트 폴' 성당을 비롯, 몇 백년 전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포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언덕 위의 요새', 약 780여년 전에 지었다는 이름난 절인 '보세선원' 등이었다.

또 이번 어린이 시범단의 활동은 마카오 데일리 등 현지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돼 이들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 주었다.

## 어린이 시범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시범

### 〈중국 주해〉

태권도는 이제 우리 고유의 무술에서 세계 140여 개 나라가 즐기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랐다. 이처럼 태권도가 5대양 6대주에 널리 퍼뜨려졌으나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이 있다.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약 12억)가 가장 많은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에 태권도 보급을 위한 중대한 사명을 띠고 어린이 시범단인 서울 신도림국교 태권도 시범단이 지난 1월 19일 오전 마카오에서 걸어서 중국 국경선을 넘어 광둥성 주해시로 들어갔다. 이 날 신도림국교 시



▲ 포르투갈 영토인 마카오 콜로안 섬에 있는 경찰 학교에서 시범을 끝낸 뒤 시범단 일행과 경찰 학교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범단의 중국 입국은 우리 나라 어린이 시범단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국내 어린이 스포츠 팀으로선 전 종목 통틀어 첫 중국 입국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주해시는 마카오와 바로 붙어 있는 인구 80만명의 전략적 공업 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 특구. 지난 79년 심천 산두 하문 등지와 함께 첫 개방 지역이 된 이 특구에서는 외국 기업의 활동이 허용될 뿐 아니라 각종 우대 조치도 주어지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번 시범단이 주해에 들어가 기가지는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회장 최동호) 문명곤 사무총장(39세, 6단)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였다. 문 총장은 중국에 태권도를 심기 위해선 개방

지역이자 경제 특구인 주해와 심천을 먼저 파고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주해시 체육회 등에 태권도의 국제적인 위치를 알리는 등 백방으로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지난 해 지하철 공사 태권도팀과 성인 시범단이 이곳에 들어가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렸고, 이어 이번에 어린이 시범단이 주해시 체육 총회(회장 류왕센) 초청으로 이곳에 들어갔던 것. 또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에 서도 어린이 시범단이 이곳에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외교관 구실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 비자 발급에 힘쓰는 등 시범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주해에서의 시범은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주해시 종합 체육장 실내 체육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시범장인 체육관은

지난 해 세워진 다목적 체육관으로 수용 인원은 약 700여명. 이 날 체육관을 찾은 관중은 주로 초·중·고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다.

시범단 임원 소개에 이어 꽃다발 증정과 선물 교환이 끝난 뒤 21명으로 짜여진 신도립교교 시범단은 하얀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 단숨에 오와열을 맞추고 큰 소리로 '태권' 하며 인사하자, 관중석은 어린이들의 절도 있는 행동에 놀랐는지 슬렁되기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 시범 분과 최재무 위원장(45세, 7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따라 21명의 시범단은 마치 한 사람의 동작을 펼치듯 동시에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기본 발차기 폼새 등을 선보였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뒤 이어 장애품 넘어 옆하고



▲신도림 시범단을 4차레나 마카오에 초청한 이동섭씨. 현재 마카오 치안 경찰청 태권도 총교관(공무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먹 격파(임민수)를 비롯, 5명 넘어 모듬발 옆차기(양해현), 4연속 회전 뒤돌려 차기(김동현), 2단 양발 고축(김형수) 등 고난도의 격파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와아!' 하는 소리와 함께 환호에 찬 박수 갈채를 보내주었다.

주최에서의 어린이 시범은 한마디로 성공적이었다.

이 날 관중석에는 이곳에 진출한 한국인 기업체 조흥실업차일환 공장장 가족과 유일한 한국 식당 한일관 주인 김우만 씨, 연변에서 6개월 전에 이곳으로 옮겨 일자리를 구한 교포 3세 최대식 씨(27살) 등이 참석, 어린이들의 대활약을 보고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짓기도 했다.

한편 시범단 일행은 이 날 주

해 최대의 휴양지인 도가촌 안에 있는 빌라 두 채를 빌려 하루를 보내며 또 다른 경험을 가졌다. 이곳에 진출한 한국인 기업체(세모, 조흥실업 등) 간부들이 중심이 돼 최근 구성된 한인회(회장 김윤태, 탐전자 사장)에서는 1월 20일 아침 시범단 일행에게 아침을 대접하며 격려해 주었다.

#### 〈중국 심천〉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 중국 최남단 광둥성에 위치한 '심천'을 찾아보라. 홍콩과 붙어 있는 심천은 중국이 '제2의 홍콩'을 목표로 첫 경제 특구로 만든 개방 지역. 인구는 현재 약 4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가지는 홍콩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빌

딩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최고로 높은 53층 빌딩인 국제 무역 센터 건물도 이곳에 있다.

서울 신도림교과 태권도 시범단이 배편으로 주해 구주항을 떠나 심천 사구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정도. 파도가 높아서인지 배가 요동을 심하게 쳤고, 이 때문에 5~6명의 시범단 어린이들이 토하는 등 고통을 많이 했다.

시범단이 사구항을 나서자 뱃머리에는 공안부 로우 지역 분국장인 천췌이쩌연씨 등 여러 명이 마중을 나와 시범단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한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이곳에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범단은 바로 중심가인 남호로에 위치한 로우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어 시범단 일행은 중국 민속 문화촌 관광 길에 나서 중국 곳곳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생활상을 구경했고, 아름다운 인공 폭포와 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음 보살상, 전통 문예 공연장 등을 둘러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심천 방문 이틀째인 1월 21일은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됐다. 이 날 시범이 있는 날이었지만 오전에는 세계 최대의 '소국인'을 관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국인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인 만리장성 자금성 천안문 천단 소림사 수심 가지를 실물

모양으로 축소시켜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과 눈길을 모았다.

특히 시범단 어린이들은 천안 문 앞의 수십만 인파를 소인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심천에서의 시범은 이 날 오후 4시 이곳 인민 경찰 학교 체육관에서 슈즈능 교장을 비롯한 학교 간부와 학생 등 300여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열렸다. 주 홍콩 한국 총영사관 심천담당 한형동 영사도 어린이들이 민간 외교관 구실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견스러워 홍콩에서 이곳까지 달려와 격려해 주었다.

신도립 어린이들의 시범에 앞서 경찰학교 간부와 시범단 임원들의 상견례가 있었고, 이곳의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슈즈능 교장에게 세계 태권도 연맹 발행의 명예 3단증이 수여됐다. 단증 수여는 서울시 태권도 협회 박노규 사무국장이 했다.

중국인은 본래 무술을 좋아하는 국민이다. 중국을 찾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공원 같은 공지에서 각종 우수(무술을 일컬음)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21명으로 짜여진 신도립국교 시범단은 이곳에서 25가지의 어려운 격파 시범과 품새, 기본 동작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였다. 약간 쉬운 격파부터 점점 어렵고 까다로운 격파가 잇따라 펼쳐질 때마다 경찰 학교 학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 가운데 몸뚱이 기본 발차



▲ 서울시 태권도 협회 박노규 사무국장이 중국 심천 인민경찰학교 슈즈능 교장에게 명예 3단증을 전달하고 있다.

기 격파(양태복)를 비롯, 5명 뛰어 열차고 뒤차기(최원철), 3연속 뛰어 앞차기(정연옥) 격파 등은 일품이었다.

이 날 시범이 끝난 뒤 경찰 학교 슈즈능 교장은 “어린이들의 시범을 보고 태권도에 반했다”며 “오는 2월부터 경찰 학교 교과 과목에 태권도를 정식으로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심천 시범을 성사시키는 데 가장 공이 컸던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 문명곤 사무 총장은 “91년도부터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을 찾아 태권도를 심으려고 힘썼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린이 시범단이 깜찍스런 파괴력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태권도의 우수성을 보임으로써 이곳에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기뻐했다.

심천시 인민 경찰 학교 슈즈능 교장은 이날 밤 중국 귀빈들만이 가는 심천시 외곽에 위치한 은호 리조트 호텔 음식점에

서 시범단 일행에게 최고급 요리로 저녁을 대접했다.

앞으로 심천 경찰 학교 태권도 지도는 홍콩에서 활약하고 있는 문명곤 사범이 맡게 된다. 머지 않아 중국 첫 경제 특구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이곳에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열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단은 22일 홍콩으로 향했다.

## 홍콩시범

서울 신도립국교 시범단은 국제 도시 홍콩 일정에서 시범을 통해 한국 어린이들의 씩씩한 기상을 떨쳤고, 이미 태권도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홍콩 친구들과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행사는 이번 일정의 마지막 행사로 시범단은 다른 어느 곳보다 성황 속에 마무리 해 최대 성과를 냈게 했다.

시범단이 중국 심천에서 열차편으로 홍콩에 다다른 것은 지난 1월 22일 정도 쯤. 시범단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범장인 홍콩 구룡 반도 최고 명문 사립 국교인 라살레 소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회장 최동호)가 마련한 이날 시범 행사에는 라살레 소학교 체육교장을 비롯, 시범단의 김영국 단장, 조선구 신도립국교 교장, 홍콩 한인 체육회 류기인 회장, 서울시 태권도 협회 송봉섭 전무, 주 홍콩 총영사관 황해철 영사 등 귀빈들과 이 학교 태권도 부원 50여명이 참석, 신도립 어린이들이 신기에 가까운 격파 묘기를 보일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 주었다.

라살레 소학교 태권도부 어린이들은 이날 신도립국교의 본 시범에 앞서 태권도 기본 동작 시범을 선보여 강당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로부터 환호에 찬 박수 갈채를 받기도.

라살레 소학교는 중국 무술 영화 최고의 영웅 이소룡이 나온 학교로 57년 전 개교할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무술을 지도해와 지난 91년부터 특별로 태권도 유망주를 키우고 있다. 이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는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 문명근 사무 총장.

경복 사대 체육과를 나와 경북 문경에서 한 때 고교 교사 생활을 한 바 있는 문 사무 총장은 태권도 6단의 사범으로 6년 전



▲중국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앞장 서고 있는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 문명근 사무총장.

에 홀출 단신으로 홍콩에 왔다. 그는 초창기 이곳에서 태권도를 심기 어려워 귀국을 결심할 정도였으나 그는 집념의 사나이답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태권도 지도에만 힘을 썼고, 그의 이러한 열의와 헌신적인 지도가 이곳 라살레 학교에 까지 알려져 마침내 2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된 것.

“홍콩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 공간이나 여유가 없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부분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 체력을 약한 편이어서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주고 체력을 튼튼히 해 줄 태권도는 이곳 학부모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최동호 홍콩 한인 태권도 협

회장은 이번 신도립국교 시범단의 라살레 소학교에서의 행사는 이곳 어린이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준 뜻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최재무 사범의 구령에 의해 펼쳐진 이날 20여 가지의 격파 시범은 라살레 소학교 태권도 부원과 학부모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고, 중국의 무술보다 태권도가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에 이로운 스포츠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 전임 회장이었던 류기인 씨(현 홍콩 한인 체육회장)와 김대선 씨(현 홍콩 한인 태권도 협회 고문), 그리고 홍콩 한인 체육회 전임 회장이었던 김경배 씨(현 홍콩 한인회 고문) 등은 이번 시범단이 홍콩에 머무는 동안 식사를 제공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범단은 귀국 하루 전날인 지난 1월 23일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흥가분한 마음으로 홍콩 제일의 명승지인 해양 공원을 찾아 종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해양 공원에는 중앙에서 가장 긴 케이블 카와 에스컬레이트가 있어 이를 탄 시범단 어린이들은 홍콩 앞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에 탄성을 내질렀다. 또 시범단 어린이들은 돌고래 쇼 구경과 청룡 열차 등 놀이 기구를 타는 재미에 빠져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모습이였다. [대진]



# 故 용인대 태권도학과 김광성교수의 명복을 빕니다

용인대 태권도학과 김광성교수가 3월 5일 오전 6시4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현대자동차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故人은 당시 용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편집시험의 감독차 학교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고인은 8단의 태권도 고단자로 1986년부터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대학 태권도 발전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으며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고 김광성교수의 유족으로는 미망인 이순심여사와 자녀로 세희, 태희, 정모 3남매를 두었다.

## \* 故 김광성 교수 약력

1946. 12. 17. 인천 출생

1968. 2. 동국대 졸업

1984. 11. 미국 Norwich University Vermont College 졸업(석사)

1991. - 현재 U.S Academy 박사과정 수료

1985. 6. - 1989. 2.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 회장

1986. 3. - 현재 용인대학교 교수(태권도학과장)

\* 자격, 면허 : 태권도 1급 경기지도자, 2급 태권도 심판, 3급 태권도 국제심판, 8단

\* 포상 : 문교부장관 표창, 대한체육회장 표창

## \* 저서 및 논문

### 〈저서〉

국기태권도 교본, 나남출판사(1985.8)

태권도지도이론, 나남출판사(1987.5)

안전교육, 금관출판사(1987.9)

태권도기초지도, 나남출판사(1988.1)

한국태권도사, 경운출판사(1988.2)

### 〈논문〉

- 순발력과 체력요인의 상관관계, 태권도 계간지 제37호
- 체육변천사상, 대한체육회 1982.10
- 태권도선수와 유도선수의 유연성 및 민첩성에 관한 연구, 유도대학 논문 2집 1986.
- 태권도 기본동작 몸통지르기에서 효과적 손의 위치, 유도대학무도연구소 창간호 1988.
- 해방을 전후한 태권도 계보의 인물과 품세의 변화, 대한체육과학 대학 논문 6집 1990.
- 경기규정에 따른 득점변화분석, 무도연구소 논문집 1991. 외 다수



## 김광성 교수 영전에

김광성 교수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늘 쾌활하게 뛰어다니시는 그 모습이 이마 위에 아직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웃음부터 앞세우고 그 특유한 손짓 발짓을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니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김교수님께서 이 땅의 태권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택견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익히어서 동국대학교 선무관에서 후학을 지도하기 시작한 이후, 김운용 전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도와 오늘날의 현대적 태권도가 되기까지 실기로나 이론으로나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본교 태권도학과를 초창기에서부터 담당해 오시면서 많은 후학들과 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교내의 태권도학과 발전 뿐만이 아니라 교외의 활동도 매우 컸습니다. 인천태권도협회 회장으로부터 국제무도비교학회 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약을 하여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과 함께 본교의 명예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무난히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논문 주제에 대해서 저와 많은 얘기도 나누었지요. 또

최근에는 번역 저서를 낸다기에 태권도학과 졸업생 가운데 교수가 된 제자들과 함께 저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김교수님이 영면하시기 바로 전날 밤 12시에 우리는 통화를 했었지요. 그렇게 늦도록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교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평소에 김교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은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망인과 아직도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또 아버님의 49제를 마친지도 얼마되지 않는데, 어인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운명은 하늘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번씩은 준비해야 할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김교수님께서 못다하신 유업을 계승하여 태권도학과 뿐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교수님!

잘 가십시오. 웃음을 머미고 마음 속 깊이 명복을 빕니다. **태권**

## 태권도 기술개발에 대한 小考

일반적으로 우리는 태권도 기술을 크게 수련 내용에 따라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하고 동작의 형태에 따라 서기, 막기, 지르기, 찌르기, 치기, 차기, 피하기 등으로 구별하기도 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시 공격부위, 목표부위, 형태 등에 따라 세부기술로 나뉘어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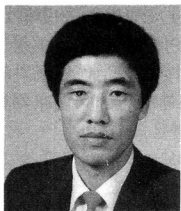
이런 각각의 세부기술들은 어떤 한 기술을 훌륭하게 습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기초형태로서 동작의 단순함과 단일성에 준한 초보적인 형태와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응용된 동작으로 정형화시키거나 세련화시켜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동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상호 연관성을 이루며 보완적 기술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근래의 태권도 기술체계는 급격히 발달되어가는 경기기술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태권도가 투기라는 형태의 기술로서 투쟁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띄었다면 지금의 태권도는 스포츠화된 경기로서 경기규정에 의해 필요한 기술들로 변화 응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태권도 기술이 점차 발전되고 변화된 이유는 무술로서의 태권도 보다는 경기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함에 의해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서 기술 그 자체가 추구하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에 변화가 주어지므로 태권도 기술체계는 필연적으로 변화 되는 것이다.

종래 태권도 기술을 크게 기본동작, 품새, 겨루



김 영 수/前 국가대표 코치·8단

기, 격과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기본동작은 공격과 방어 동작으로서 신체 각 부위를 무기로 한 기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태권도의 고유한 수련 방법이나 기술체계에 상당한 부분 변화가 주어졌는데 우선 수련 내용에서도 기본동작이나 품새를 연습했던 형식주위의 수련에서 이제는 겨루기에 중점을 두는 수련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운동기술은 그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기술은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기술의 목표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기본동작이나 품새들이 실제 경기나 겨루기를 실시함에 있어 얼마나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제시 되어져야 한다.

먼저 이런 구체적인 논의의 토대는 현재 체육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막기, 지르기 형태의 손기술인 기본동작과 품새를 재정립함으로써 품새에서 사용하는 손기술과 겨루기에서 사용되는 발기술을 서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형성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도로서 갖는 기술의 성격인 단일성, 일회성, 안정성, 힘의 기술체제를 지금 시행되는 경기(겨루기)기술인 복잡성, 연결성, 기동성, 스피드의 기술체계와 결합시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품새 중 유급자와 유단자 품새를 일정한 형태와 고정된 연무선에 한정된 동작들로 구성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새로운 동작이나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응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품새는 실전을 대비한 동작의 연결형태라기 보다는 단순하게 주어진 기술동작을 모방하기 위한 동작연결이다.

따라서 일정한 틀에 넣고 기술동작을 고정화시키기 보다는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동작

들로 응용시키고 손동작의 방어기술 보다는 공격적이고 난이도 높은 차기기술을 접목시켜 품새를 좀 더 다양화 시킬 필요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품새는 난이도에 따라 유급자와 유단자로 구분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된 유단자들에게는 스스로 동작을 개발하고 창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경기는 겨루기 자체안에 다양한 기술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앞차기, 돌려차기, 뒷차기 옆차기, 뒤후리기, 앞후리기, 내려차기 등이며 이런 차기기술들은 상대의 공격과 반격에 따라 STEP과 더불어 수많은 기술들로 파생되어 경기기술의 다양화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기에 사용되는 차기기술들은 많은 에너지와 운동능력이 필요한 기술로서 선수라는 특수층만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기술이 보다 개발되고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보면 고난도의 차기기술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형태 부터 재정립 되어져야 하며 이런 기술을 다양화와 세분화 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것 같이 태권도 기술은 현재 손기술이나 발기술 등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습득되어져 왔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서 기술의 한계와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들이 상호연관적인 기술체계로 관련되어져 왔기 보다는 다소 이질적인 기술형태로 분리되어 발전되어져 왔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기술 개발은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등이 갖는 고유한 성격에서 탈피된 기술동작의 변화와 응용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기본동작이나 품새의 근본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기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기술의 응용이 보다 발전된 기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상호연관 지을때 태권도의 기술체계가 개발되고 정립되는 것이다. **태권**

## 몽고에 태권도 보급 시작



▲도복을 입은 몽고의 수련생들 모습이 우리와 닮았다.

한 상 진 / 한스체육관장

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몽고에 한국의 태권도가 첫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은 1992년 4월이었다.

1991년 4월 한국과 몽고간의 정식 수교 후 몽고 올림픽위원회 막살 사무총장은 몽고 태권도협회를 결성하여 회장에 취임하고 부회장에 자콜라트와 넴바야, 사무총장에 조르갯트를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몽고의 태권도 보급을 위한 사범 파견을 요청하고 태권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구입하여 몽고로 돌아갔다.

몽고 태권도협회의 조르갯트 사무총장은 5년간 모스크바 경찰대학에 유학하고 돌아온 유능한 젊은이로 유학 당시 3년간 가라데를 배운 유단자였기 때문에 막살회장이 갖고 돌아온 태권도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통해 태권도 품세를 스스로 익히며 동호인을 조직해 나갔다고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몽고의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1992년 4월 태권도 고단자인 박해만씨와 한상진씨를 몽고에 최초로 파견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몽고의 하늘아래 태권도 기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몽고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세계태권도연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당시 20일간의 일정으로 태권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짧은 일정이었지만 몽고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보도하면서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그 후 같은해 7월 경희대 태권도학과 학생 2명이 몽고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했으며 이어 세계연맹의 후원아래 최봉호 사범을 파견,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강추위 속에서도 태권도의 진수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후 1993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상진사범이 92년도에 이어 두번째 세계연맹의 후원아래 파견되어 태권도를 몽고에 심어나갔다.

몽고는 현재 11개의 태권도장이 개설되어 2000여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몽고에서의 태권도 보급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국제적인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위상으로 몽고인들 사이에 인식이 높아 태권도 보급은 날로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태권**

# 고단자 심사를 다녀와서

이 인 재/부산 우양체육관

1993년 12월4일! 그날은 어느 때와는 달리 포근하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몸을 움추리게 하였다.

밤열차를 타고 선배 두분과 함께 태권도의 향후 전망과 품새 동작을 서로 의견교환 하면서 가다보니 벌써 영등포 역에 도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른 새벽이라 국기원 부근에 있는 사우나탕에서 샤워와 눈을 잠시 붙이고 밖에나와 식사를 하고 국기원으로 향하였다. 도복을 갈아입고 몸을 풀고나니 개회식이 있었다. 식이 끝나고 품새 실기교육을 받았다. 품새는 내가 평소 체육관에서 연습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동작이 몇 개 있어 수정하여 몸에 익힐 때까지 열심히 반복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혹시 심사도중 습관이 되어버린 예전 동작이 나오면 어쩌려나?' 하는 우려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심사도중 틀리지 않고 나름대로 정확하고 절도있게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폐회식을 마치자 웬지 공허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골몰히 생각에 잠겼다. 전국에서 모인 응심자 중에는 기본자세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심사위원의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하는 생각을 떠나서 '우리' 라는 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볼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련하여 응심하면 어떨까 싶다. 수련은 하지않고 인맥을 통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단자 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자, 보아라. 그날 그 멋진 장면을... 연세가 많이드신 관장님들이 직접 도복을 입고 막고, 차고, 지르는 그 모습은 실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아닌가

싶다. 우리모두 그분 실기 동작이 끝날즈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연세에 흰 도복을 몇몇이 입고나와 심사에 응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대단한 것인가! 과연 우리 일선 체육관 관장님들은 얼마나 도복을 입고 자기 수련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각기 조금씩 다른 일선 지도자들의 품새를 하나로 일치 시키고자 국기원에서 심사대회에 앞서 두시간씩 보충 품새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다고 본다. 나 역시 연습을 하고서는 "아, 이동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하고 느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다시 수정 연습한 것을 일선에 있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심사도중 응심자들의 태도이다. 앞에서는 심사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는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뭔가 심사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없고 어수선 하다고 느껴진다. 바른 자세를 갖추고 앉아 앞을 응시 하면서 마음속으로 동작도 함께하고 마칠땐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우리는 무도인이자 지도자 들이다. 자기 차례가 끝났다 하더라도 조용히 앉아서 모두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태권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본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폐회식을 마치자마자 모두 바쁘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1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지도자들... 승단 심사때 만이라도 태권도 보급과 후배양성에 맘을 흘리시는 지도자들간에 모처럼이 기회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조출한 커피타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나 싶다. **태권**

# 태권도인의 정신자세

최 점 현/항공사령부 대위·경희대  
태권도학과 졸업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많지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또 장기적 처방이 요구되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라 생각한다.

오천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원시신앙을 비롯 불교, 유교사상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이들 중 우리의 생활양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유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오랜세월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무도사상, 즉 태권도 정신 또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서구의 시민윤리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급격히 탈피하여 개인의 권리와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수직적 인간관계의 전통윤리와 평등을 강조하는 서구의 수평적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현상이 정신수양을 중요시하는 태권도 교육의 현장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나 일선도장에서 교사나 사범의 경우에는 지식이나 기량의 전수를 초월하여 학생이나 수련자의 인격형성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전인교육 그자체의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요즘은 마스크를 통하여 체벌을 가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법적 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중

중 접할 때마다 태권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연장자와 연소자, 고단자와 유단자의 관계에서 엄격한 예의 범절이 중요시 된다는 사실은 태권도인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일선 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수련도중 태권도 사범의 체벌을 거역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수련생은 없다. 이는 곧 상하간의 예의, 겸손 등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투지력을 길러주는 태권도의 기본정신이 수련생들에게 이미 스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과 수련하는 수련생, 그리고 전체 태권도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 그리고 태권도와 태권도인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태권도의 본래 정신과 일치할때 태권도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무대로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과 일맥상통하는 태권도 정신의 교훈대로 태권도인은 윗사람에게 예의와 존경으로 대하고 동료간 신의를 유지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도덕성을 항상 간직하고, 서구의 시민정신의 장점을 우리의 생활원리와 슬기로운 방법으로 승화 시켜 나간다면 오늘과 같은 도덕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범생으로 한몫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태권**

# 행 사 기 록

## 표 장

### '94 대한태권도협회 표 창 수여식 (2.18,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

#### <서울시협회>

##### ▲우수도장상

임성근(중앙체육관)

심성훈(라이온스체육관)

##### ▲지도상

전관선(광희국민학교)

##### ▲경기상

김현일(지하철공사)

#### <부산협회>

##### ▲우수도장상

이부용(연제체육관)

##### ▲지도상

최천수(감천체육관)

##### ▲경기상

이임수(개금고)

#### <대구협회>

##### ▲우수도장상

장상한(명덕체육관)

##### ▲지도상

김문화(대구태권도협회)

##### ▲경기상

조성호(대구태권도협회)

#### <인천협회>

##### ▲우수도장상

이현기(이현기체육관)

##### ▲지도상

박운서(선인고)

##### ▲경기상

곽택용(한체대)

#### <광주협회>

##### ▲우수도장상

이재욱(동신체육관)

##### ▲지도상

박종선(문성중)

##### ▲경기상

김봉관(조선대)

#### <대전협회>

##### ▲우수도장상

한영환(문산체육관)

##### ▲지도상

조성담(대전시협회)

##### ▲경기상

정주철(충남대)

#### <경기도협회>

##### ▲우수도장상

전용담(백호체육관)

##### ▲지도상

안영고(경기도협회)

##### ▲경기상

박은선(고양중고)

#### <강원도협회>

##### ▲우수도장상

장석주(동해체육관)

##### ▲지도상

허인규(강원사대부속고)

##### ▲경기상

서성교(춘천군청)

#### <충북협회>

##### ▲우수도장상

성정환(상당체육관)

##### ▲지도상

김상문(서부체육관)

##### ▲경기상

민정환(청주대)

#### <충남협회>

##### ▲우수도장상

김봉관(공공체육관)

##### ▲지도상

정해준(충남체고)

##### ▲경기상

유성호(보령군청)

#### <전북협회>

##### ▲우수도장상

김경수(초원체육관)

##### ▲지도상

이원택(전주공고)

##### ▲경기상

정울진(경희대)

#### <전남협회>

##### ▲우수도장상

임병영(서면체육관)

##### ▲지도상

신우식(여수고)

##### ▲경기상

김은철(전남협회)

#### <경북협회>

##### ▲우수도장상



최대환(성동도장)

▲지도상

윤웅일(봉양중)

▲경기상

이건원(경산서청)

<경남협회>

▲우수도장상

김승배(창무체육관)

▲지도상

한규학(진주경찰서)

▲경기상

정우석(국군체육부대)

<제주협회>

▲우수도장상

김영하(탐라체육관)

▲지도상

양동인(신선체육관)

▲경기상

박경숙(경희대)

<대학연맹>

▲지도상

전정우(경희대)

▲경기상

이순영(용인대)

<중고연맹>

▲지도상

양성관(경성여실고)

▲경기상

김경훈(동성고)

<국교연맹>

▲지도상

정장화(안양석수국민학교)

▲경기상

이창훈(서귀중앙국민학교)

임명

94년도 상임 심판원

<1급>

맹만호 조 동 이규현 박덕규

유문규 김강인 박종명 장용갑

조한우 김기용 장순권 박완규

최돈오 유백만 이종관 박경선

이종찬 한상진 노달선 박종률

양우호 김경찬 최봉호 이천수

박홍신 최석철 박광일 최정호

오수근

<2급>

김현성 김명환 안태연 이상곤

장세백 김광현 송우길 장명수

이봉학 정정식 장창영 강석환

차정훈 이한현 최종복

<3급>

김현수 김경호 양인옥 김병숙

진용호 홍연화 엄영섭 윤영미

김홍삼 민준원 선우진 양현식

최복현 이민우 이정연 김혜연

홍진국 유세종 김영태 황성수

장수영 장성동 유주한 김용선

전정광 유은기 이한균 김시경

박용근 강제원 문현식 변경숙

장학생

'94 대한태권도협회 장학생 선발

▲남자 고등부

이두건(개금고)

마정진(광양고)

김정수(개금고)

안용준(리라공고)

전형준(선인고)

정경환(개금고)

황경범(송림고)

김향수(청주기공)

이준희(태성고)

차용희(동성고)

▲여자 고등부

김윤경(경성여실고)

강해은(경성여실고)

함진희(리라공고)

김은미(태원고)

조미례(리라공고)

박현기(고양중고)

이지은(리라공고)

한은진(혜성여고)

장정은(송곡고)

이선영(송곡고)

▲남자 중등부

이상호(풍생중)

엄광흠(은행중)

서기풍(배명중)

김재훈(문성중)

김정선(서귀중)

▲여자 중등부

이진영(자양중)

정재은(자양중)

전성아(체천여중)

이선희(고양중)

배순영(동인천여중)

▲대학부

박진석(경희대 태권도학과)

조성근(경희대 태권도학과)

이항렬(경희대 태권도학과)

이재우(용인대 태권도학과)

신명환(용인대 태권도학과)

최규영(용인대 태권도학과)

국제대회

제11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1.28~30, 필리핀 마닐라)

(남자부)

▲핀급

- 1위: 최용훈(한국)  
 2위: ALIRAHIMZADEH(이란)  
 3위: ROBERTO CRUZ(필리핀)  
 TAN KOK CHEN(말레이시아)

▲ 플라잉급

- 1위: 고동완(한국)  
 2위: MOHSEN SHIRZAD(이란)  
 3위: LUGIRIYANDI(인도네시아)  
 KUMAR AL SUKALINGAM  
 (말레이시아)

▲ 밴텀급

- 1위: 김현용(한국)  
 2위: WALTER DEAN VARGAS  
 (필리핀)  
 3위: ALF DELL ORSO(호주)  
 ADEEL SALEH ISA(바레인)

▲ 페더급

- 1위: 양재철(한국)  
 2위: CHING FU YAO(대만)  
 3위: ROBERT VARGAS(필리핀)  
 HIROYUKI YAMASHITA  
 (일본)

▲ 라이트급

- 1위: 정광채(한국)  
 2위: CHENG HUNG WEI(대만)  
 3위: RAMELITO ABRATIQUE  
 (필리핀)  
 TRUONG TUAN VU(베트남)

▲ 웰터급

- 1위: ARNOLD ATIENZA(필리핀)  
 2위: TZU IEN LIU(대만)  
 3위: NGUYEN DANG KANH  
 (베트남)  
 JEETENDER KUMAR RAI  
 (말레이시아)

▲ 미들급

- 1위: 박종범(한국)  
 2위: AMMAR FAHED SUBAIHI  
 (요르단)  
 3위: MAJID AMINTOURABI(이란)

KHALED F.AL HARTHI  
 (사우디아라비아)

▲ 헤비급

- 1위: 김재경(한국)  
 2위: ZARAKHSH, FARZAD(이란)  
 3위: PAO, YI WU(대만)  
 TALAL, A.J.A FARAS  
 (쿠웨이트)

(여자부)

▲ 핀급

- 1위: YUEH YING LO(대만)  
 2위: DAYANG A.B.AWANG DAMIT  
 (말레이시아)  
 3위: NGUYEN T.N.PHUOC  
 (베트남)  
 양소희(한국)

▲ 플라잉급

- 1위: 이순영(한국)  
 2위: SANGINA BAIDYA(네팔)  
 3위: AZENITH ONG(필리핀)  
 VICKI CENERE(호주)

▲ 밴텀급

- 1위: 진용순(한국)  
 2위: HUI WEN TANG(대만)  
 3위: TRICIA ANGELA PUGEDA  
 (필리핀)  
 NGUYEN THI THU THUY  
 (베트남)

▲ 페더급

- 1위: CHAO CHING LIU(대만)  
 2위: 신동선(한국)  
 3위: ALEXIS VAN HORSSSEN  
 (호주)  
 RITA ELLIS(인도네시아)

▲ 라이트급

- 1위: YI-AN CHEN(대만)  
 2위: MARIA NELIA SY(필리핀)  
 3위: 강해은(한국)  
 VOPPY TRISNAWATI

(인도네시아)

▲ 웰터급

- 1위: LI CHI PAN(대만)  
 2위: YORIKO OKAMOTO(일본)  
 3위: 조향미(한국)  
 LYDIA ZAKKAS(호주)

▲ 미들급

- 1위: 박선미(한국)  
 2위: HSU JU-YA(대만)  
 3위: MARITES JAVIER(필리핀)  
 BEE LAN ONG(싱가포르)

▲ 헤비급

- 1위: 김태희(한국)  
 2위: ANIS DEWI(인도네시아)  
 3위: BEATRIZ DAPHNE TIOSECO  
 (필리핀)  
 MAY INN CHEONG  
 (싱가포르)

사 범

제77기 사범교육 합격자  
 ('93.11.8~20,국기원)

서울: 최형우, 김정호, 변진우,  
 이상문, 최재원, 이상탁,  
 이정석, 이관태, 장인권,  
 서용택, 이정환, 이화창,  
 최만출, 홍광현, 김준연,  
 이규정, 김종수, 김찬오,  
 이승철, 김무열, 강진호,  
 문상윤, 이상길, 정기호,  
 김정중, 장문규, 백진영,  
 최기영, 권병무, 이병기,  
 홍남기, 김기철, 오선주,  
 전용철, 궁중희, 김명동,  
 이종대, 김동식, 박진홍,  
 한상호, 유상훈, 김봉규,  
 정백섭, 김병운

부산: 김상률, 이동신, 김태정,  
홍상근, 우상우, 박병선,  
임병용, 권재섭, 하진호,  
김정배, 박호성

대구: 김태진, 이민호, 이해석,  
신진철, 신정환, 이동국,  
김태룡

광주: 이육환, 주석순

인천: 최안성, 박성기, 최영우,  
강명성, 정용석, 박용찬,  
이동열

강원: 박경철, 이종두, 이우근  
경기: 최창만, 박정식, 박정희,  
박봉연, 임창섭, 한기동,  
김삼중, 임홍순, 이해만,  
최병수, 최남진, 정충성,  
이홍태, 유재현, 박기범,  
방병석, 윤성식

전남: 박영남, 유창호, 한승만,  
김영숙, 박동수, 오창용,  
강필호, 신경애, 류충완

전북: 조용현, 안봉국, 함 준,  
천명렬, 김 용, 최진욱

경남: 김창희, 김춘열, 임정민,  
서창오, 이은주, 이철길,  
김길수, 신석만, 유효준,  
정종수, 이선중, 최무신,  
김민주, 이인식, 이종식

경북: 황태상, 김선우, 이판옥,  
김홍복, 도영상, 김희석,  
우지철, 김진호

제주: 양행권, 김 용

국방부: 금영준, 신현덕, 박기정,  
강상욱, 김중달  
기타: 이동희, 이남복, 권오길,  
전대식, 김근식, 이성욱,  
김철용, 김용문, 박대원,  
신영철, 이재철, 강성환,  
이광우, 남평희, 한정훈,  
최진영, 정정오, 윤일선,

이형인, 양승찬, 주성면

## 경기도자

### 2급 경기도지사 연수과정 ('93.10.7~26,국기원)

#### <합격자 명단>

진홍식	홍연석	김경옥	양승모
하성우	김리노	황경만	이재희
김태연	정현철	임종만	안옥조
홍순길	손승섭	김문현	장승찬
김진우	김영기	김희덕	양성우
이준석	홍순의	인종욱	김형선
최진표	윤성식	이창용	장재훈
임현일	조한용	고창일	임홍태
장 철	김우섭	김상규	조광일
정순규	김덕원	윤재석	김경남
류형원	김종진	문정선	박형근
진선화	이안호	김남국	이정록
공오분	이기우	정진섭	안우현
김태성	한영조	김 종	조중훈
박순호	문영재	이국중	정해립
조현철	윤재형	김영민	홍세정
임성훈	정대환	임홍용	우성제
노윤환	신영미	이훈희	김덕한
손창섭	이우성	김태형	이승원
김석수	양일남	이성형	정기영
정유경	이윤주	정준호	김용섭
정찬문	정문희	김상철	도한진
김현철	정영철	유재중	옥미정
송용주	김채문	이중재	정재교
장윤수	소인철	한진수	김완철
황정인	오상명	박진교	차민영
정진호	정보성	이완희	차현영
박재호	박혜영	전현석	신근언
김상기	김하근	박형문	이용목
정인수	안용희	맹성재	이병열
유성희	김민정	강모옥	김해국
원점조	유해성	홍성일	임장섭

## 고 단 자 승 단

### 93년 4차고단자 승단심사 ('93.12.4,국기원)

#### (6단)

- ▲ 서울: 김동두 이호열 조정희 주동현
- ▲ 부산: 이인재
- ▲ 대구: 김기수
- ▲ 대전: 김 호
- ▲ 광주: 이병도 최상철 이동원
- ▲ 경기: 박영택 강명구
- ▲ 충북: 지용범 성정환 유효열
- ▲ 경남: 이정섭 김지화 윤무혁
- ▲ 전남: 임흥기
- ▲ 국군: 최석규

#### (7단)

- ▲ 서울: 박계홍 김재화 박계규 진중의
- ▲ 부산: 노두홍 차길훈 이윤남
- ▲ 인천: 김재환 김용록
- ▲ 경기: 최학수 이명호
- ▲ 경북: 윤종욱
- ▲ 경남: 김덕용
- ▲ 전남: 김원규

#### (8단)

- ▲ 서울: 최경권 최말영 강대복
- ▲ 인천: 김영수
- ▲ 경기: 김광옥
- ▲ 경남: 유호성

#### (9단)

- ▲ 서울: 황춘성 **태권**

# 행사 안내

- ▲ 4월 1일~3일 : 제주심판강습회
- ▲ 4월 6일~8일 : 서울·경기·강원지역 심판강습회(국기원)
- ▲ 4월 11일~17일 : '94년도 전국중별선수권대회(중·고·일반부)  
장소 : 체조경기장(올림픽제1체육관)
- ▲ 4월 22일~23일 : IOC 100주년기념 서울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장소 : 장충체육관  
주최 : 세계태권도연맹  
초청국 : 한국·미국·스페인·호주
- ▲ 5월 6일~7일 : 제21회 대학연맹 개인대회  
장소 : 수원실내체육관  
접수 : 대학연맹(545-4707)
- ▲ 5월 5일~6일 : 제 15회 태권왕겨루기대회  
장소 : 국기원  
접수 : 국민학교연맹(648-0006)
- ▲ 5월 19일~20일 : '94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장소 : 국기원  
접수 : 대한태권도협회(420-4271~3)
- ▲ 5월 28일~31일 : 제 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장소 : 광주
- ▲ 5월 29일~6월 3일 : 제 21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접수 : 중고연맹(562-6597)
- ▲ 6월 13일~17일 : 제 29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대회  
장소 : 부산 구덕체육관  
경기방식변경 : 8체급 개인전 복합방식에서 5명제 단체전(3명 선승제)  
참가자격 : 고등부, 대학부, 18세이상 일반부 남자.  
접수 : 대한태권도협회
- ▲ 6월 18일 : 94년도 2차 고단자(6~9단) 승단심사  
장소 : 국기원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1부(사진 3×2 : 2매), 주민등록 등(초)본 1부, 8,9단 응삼자 이력서 1부 추가제출.  
접수처 : 대한태권도협회(420-4271~3)
- ▲ 6월 28일~30일 : 제 6회 경희대총장기대회  
장소 : 수원실내체육관  
접수 : 경희대 태권도학과(0331-280-2718)
- ▲ 6월 22일~7월 5일 : 제 79기사범 및 3급사회(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자격 : 만 20세이상, 4단이상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사진 3×4:5매)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소정양식) 1부  
접수 : 해당 시도협회(직인날인필)  
문의 : 연수원(568-3341) **태권인**

# '9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태권도협회는 1월14일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의 사업 및 수지결산을 승인하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1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9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제12회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의 석권으로 국위선양 등 각종 국제대회의 제패 ▲태권도 한마당 경연대회 국제행사로 규모확대 ▲태권도 문화증진을 위한 사진전개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 교류 강화 ▲법인화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자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회의를 주재하는 최세강회장



▲ 대의원 총회 모습

# 태권도 올림픽종목채택 추진위원회 결성

세계태권도연맹은 1월 1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태권도가 2천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올림픽채택 추진위원회는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49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김집 전 체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 2천년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을 위한 작업 본격화



# 94년도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수여식

대한태권도협회는 2월 18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권도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표창 수여식을 갖고 우수도장상, 지도상, 우수선수상 등 3개 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 탁월한 지도능력을 발휘한 지도자상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최세창 회장.



▲ 성공적인 도장운영으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도장상을 받은 수상자들(사진 뒷줄)과 자리를 함께한 태권도계 임원들

##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94년도 각종사업의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술심의회 임원이 선임되었다. 김인석 기술심의회 의장을 비롯한 11개 분과위원회 임원들이 2월 18일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세창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 94년도 장학생 선발

대한태권도협회는 경희대와  
용인대 태권도학과 성적우수자  
및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중고등부 학생 등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8백 6십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아시아연맹 회원국 20개국에서 각국대표 총 20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행된 제1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남자부는 웰터급을 제외한 7체급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우승으로 11연패를 달성, 중주국의 위용을 떨쳤다. 여자부는 역대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대만의 도전에 고전했으나 선전분투하며 대만과 공동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남자 7체급 석권, 11연패 달성,  
여자부 대만과 공동우승 차지



**11<sup>TH</sup> ASIAN TAEKWONDO CHAMPIONSHIP**  
JAN. 28-30/1994 **MANILA, PHILIPPINES** NINYO AQUINO STADIUM

▲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높이 든 한국대표선수단 박창락단장.



▲ 한국대표선수단의 입장식 모습



▲ 남자 금7, 여자 금4 은1 동3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선수단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게임파견,  
국가대표선발

오는 10월 8일과 9일 히로시마 아카위드 체육관에서  
거행될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게임 태권도 경기에  
파견될 한국대표선수 4명이 확정되었다.  
3월 16일 국기원에서 '94 국가대표간(하위체급 1,2위자와  
해당체급 1,2위자) 리크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게 된  
플라이급의 진승태(한체대), 페더급의 김현웅(경희대),  
웰터급의 정광채(한체대), 헤비급의 김지경(상무)  
선수는 3월 20일 태릉선수촌에 입촌,  
합숙훈련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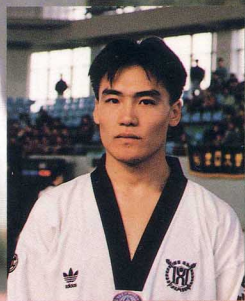
플라이급 • 진승태



페더급 • 김현웅

고등학교





웰터급 • 정광재



헤비급 • 김제경

## 경기규칙 강습회

1, 2, 3급 심판자격소지자 및 각팀의 감독과 코치를 대상으로 한 경기규칙강습회가 2월 18일과 19일 올림픽회관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은 지도자의 자세, 경기규칙해설, 심판수신호 실기,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19명이 수료했다.

▶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강의 하고 있는 홍종수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교육에 참가한 심판 및 지도자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상임 심판원이 선발되었으며 올해의 코치 및 감독으로 임원등록을 실시했다.